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82.18	↑ 코스닥	921.48
	(-2.37)		(+2.32)
↑ 금리 (미국 9년)	3.765	↑ 환율 (원·달러)	1330.60
	(+0.027)		(+10.80)

심정지 후 뇌손상 급감
‘넬로넨다즈’
조기 출시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6일 수요일

‘9월 위기설’, 정부 일축에도 경기지표 경고등에 우려 증폭

‘코로나지원 종료’ 위기설 불지퍼 연체율 치솟고 부실채권 증가 등 경기 수치 악화에 불안감 확산

금융 수장들 논의 후 “근거 없다 정부 상저하고 전망 그대로 유지”

‘9월 위기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진원지는 한 곳이 아니다. 대내적으로 코로나19 대출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데다가 대외적으로도 중국발 부동산 침체와 함께 고금리에 따른 선진국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졌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서둘러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경제지표 악화에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6% 증가에 그쳤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0%대 성장이 이어졌다.

지난 2000년 미국 리먼사태와 2011

년 유럽 재정위기, 1997년 우리나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시작된 시기가 모두 9월이었다. 작년 9월에는 증시 붕괴론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대내적으로 코로나 대출의 유예 지원 종료로 ‘9월 위기설’의 불을 지폈다. 금리는 치솟았는데 경기는 회복세가 느린 탓이다. 정부가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공개된 수치로만 보면 여느때보다 상황은 좋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지난 3일 모여 ‘9월 금융 위기설’에 대해 논의했지만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 대출’은 오는 2025년으로 만기가 연장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불확실성이 많으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역시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 “상저하고”라는 정부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9월 위기설’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모르겠지만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공개되는 경기 수치는 부정적이다. 연체율은 치솟고, 부실채권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중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만 4조원이다. 전분기 3조원 대비 1조 원이나 급증한 것은 물론 작년 2분기(2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신규 부실만 2조4000억원 규모다.

당국이 부실채권 정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상반기 말 기준 0.3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15%포인트(p) 상승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1330원 돌파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37포인트(0.09%) 내린 2582.18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80원 오른 1330.6원을 보이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미국서 ‘뚜레쥬르 빵’ 만든다 CJ푸드빌, 조지아주에 첫 공장

美에 뚜레쥬르 1000개 매장 목표 500억 이상 투자, 연내 착공 계획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미국 공장을 설립하고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CJ푸드빌은 최근 미국 공장 설립 투자 내용을 확정하고 조지아 주로 공장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30년 미국 내 뚜레쥬르 1000개 매장 확보’ 목표에 맞춰 이번 미국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국내 식품업계로는 최초로 미국 동남부 지역인 조지아 주에 진출하게 되며, 홀카운티 게인스빌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약 9만㎡ 부지에 생산공장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CJ푸드빌이 이번에 설립을 결정한 미국 공장은 냉동생지, 케이크 등 연간 1억개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규모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향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 현재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북미지역 뚜레쥬르 가맹점의 생산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CJ푸드빌은 공장 후보지로 조지아 주 외에도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검토했으나, 주 정부 장관이 CJ푸드빌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이번 공장 유치가 가장 적극적이고 친기업 환경의 조지아 주를 최종 낙점했다.



뚜레쥬르 미국 세리토스점 전경. /CJ푸드빌

실제로 조지아 주는 미 전역으로의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330여 개의 글로벌 제조, 식품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비즈니스에 친화적인 곳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공장 설립을 통해 CJ푸드빌 역시 향후 조지아 주 현지의 300여명에 달하는 신규 채용 효과를 제공할 전망이다.

CJ푸드빌은 2004년 뚜레쥬르로 미국에 진출하며 첫 해외 사업을 전개했다. 2009년부터는 가맹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CJ푸드빌 해외법인 중 최초로 독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현재 LA,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미국 26개 주에 진출해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 하며 현지인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中 7나노 공정 확인… 美 규제 ‘무용론’ 확산

화웨이 ‘메이트60 프로’ 통합칩 ‘SMIC 7나노 공정서 양산’ 결론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음이 확인됐다. 여전히 최신 기술과 비교하면 수세대 뒤쳐지긴 했지만, 미국 무역 규제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 모습이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반도체 분석기관 테크인사이트는 화웨이 메이트 60프로를 분해해 7나노 공정을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메이트60 프로는 화웨이가 지난달 공개한 플래그십 모델이다. 미국 무역 규제 속에서도 새로 개발한 통합칩(SoC)인 기린 9000s를 탑재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5G 통신도 지원한다.

테크인사이트는 기린9000s가 중국 SMIC가 개발한 7나노 공정에서 양산했다고 결론냈다. 구체적으로는 14나노 핀펫 공정을 개량한 N+2를 지목했다.

테크인사이트에 따르면 기린 9000s는 다이가 107mm로 전작인 기린9000



화웨이가 발표한 메이트 60 프로

보다 2% 크다. 다이를 다방면으로 분석해 SMIC가 제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트랜지스터 게이트와 하부 백엔드 오브 라인(BEOL) 금속화 피치 등에서 7나노 공정 특징이 보였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뿐 아니라 장비 수출 규제도 14나노 이상 양산을 불가능하게 압박하는 상황, 중국이 결국 이를 돌파했다는 의미다.

이미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돕는 일이라고 비판해왔다. 경쟁

을 막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일단 업계에서는 중국이 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갖췄다는 데 회의적인 분위기다. 7나노 공정을 양산하는 노광장비가 구형인 심자외선(DUV)일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ArF의 경우 파장이 193나노에 달해 7나노 공정으로 만들려면 최첨단 장비인 EUV 대비 수십 배 공정을 더 반복해야 한다. 생산 기간이 길어짐은 물론 수율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메이트60프로는 한정된 물량만 판매 중이다. 이 때문에 기린9000s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SoC를 뒤늦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장비도 자체 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의 자체 반도체 노광장비 기술력은 100나노 남짓, 그나마도 상당 부분을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채 상병 외압 의혹에 국방장관·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다” /사진 뉴시스

▲ 하태경 “‘홍범도 선거’ 되면 국민의힘 망해… 지도부 나서야”
▲ 유상범 “이재명 단식 이어지면 9월 중 검찰 구속영장 청구 어려워”



▲ 단식 이재명, 김진표 의장에 “정치 사라져”… 김 “여야 존중해야” /사진 뉴시스
▲ 북러 정상회담 추진설… 통일부 “평화 훼손 않아야”

심정지 후 뇌손상 급감... 토종신약 '넬로넴다즈' 조기출시

지엔티파마, 임상 2상 약효 확인
식약처에 조건부허가 신청키로

위약 투여군 증증장애·사망자 59%
넬로넴다즈 저용량 투여군은 41%
고용량 투여군은 37%로 크게 줄어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을 할 경우 뇌 손상과 그로 인한 장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토종 신약이 출시될 전망이다.

지엔티파마가 지난 7월에 완료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넬로넴다즈 임상 2상에서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임상시험을 개시한 지 6년 만이다. 지엔티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넬로넴다즈에 대한 조건부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 2상은 삼성서울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5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심폐소생 후 4시간 이내에 자발적 순환이 재개돼 저체온 치료를 받는 심정지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넬로넴다즈.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면 뇌에서 글루타메이트와 활성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하며 분당 약 200만 개의 뇌신경세포가 사멸한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환자는 장애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발적 순환이 재개된 심정지 환자에게서 수일에 걸쳐 발생하는 2차 뇌 손상을 줄이기 위해 신체 온도를 32~34도로 유지하는 저체온 치료법이 도입됐으나 효과가 미약하고 제한적이며, 기대를

모았던 단일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들은 약효 입증에 실패해왔다.

지엔티파마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넬로넴다즈는 뇌졸중 후 뇌세포 손상의 주원인인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을 동시에 제어하는 다중표적 약물이다.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약효는 뇌기능수행범주(CPC)와 수정랭킨척도(mRS)로 평가했다. 약물 투여 90일 후 장애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은 위약 투여군에서 40.7%였으나 넬로넴다즈 저용량 투여군 55.5%, 고용량 투여군 63%로 장애가 현저히 개선됐다.

또 중증 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환자는 위약 투여군에서 59.3%였으나 저용량 투여군 40.7%, 고용량 투여군 37%로 크게 감소했다.

마지막 약물 투여 후 48시간 이내 환자에 대한 MRDWI(확산강조영상) 분석에서도 위약 투여군에 비해 고용량 투여군의 뇌 손상이 전 부분에 걸쳐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투약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발적 순환이 재개된 심정지 환자에게서 수일에 걸쳐 발생하는 2차 뇌 손상을 줄이기 위해 신체 온도를 32~34도로 유지하는 저체온 치료법이 도입됐으나 효과가 미약하고 제한적이며, 기대를 모았던 단일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들은 약효 입증에 실패해왔다.

지엔티파마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넬로넴다즈는 뇌졸중 후 뇌세포

손상의 주원인인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을 동시에 제어하는 다중표적 약물이다.

넬로넴다즈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정지 후 뇌 손상을 막는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고, 2020년에는 희귀질환 신약 개발 과제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았다.

지엔티파마 광명주대표이사(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는 "심정지는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세계 최초 다중표적 뇌세포 신약 넬로넴다즈를 희귀의약품으로 국내에 조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3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에서도 2016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희귀의약품은 신속심사 대상으로 임상 2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허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철강·석화·시멘트·반도체 4대업종 '탄소중립' 연대협력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 출범
2030년까지 총 9352억 투입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업종별 탄소중립 기술과 성과 공유 체계를 구축,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탄소중립 성과를 업종 전반에 공유하는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은 철강(금속재료연구조합)·석유화학(석유화학협회)·시멘트(시멘트협회)·반도체/디스플레이(반도체산업협회) 4대 업종별 협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컨소시엄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해 업종 전체에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확산을 촉진하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부

상호협력 체계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포스코(철강), LG화학(석유화학), 쌍용C&E(시멘트), 원익머트리얼즈(반도체) 등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들은 협력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구심점으로서 적극 활동하기로 약속했다.

출범식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여부는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제조공정의 탄소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기업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떻게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지에 달려 있다"면서 "오늘 출범한 탄소중립 그

랜드컨소시엄과 이를 지원할 협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4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비 6947억원을 포함해 총 9352억원을 투입하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업종별 탄소 감축 효과가 높은 '직접(공정) 배출 감축 기술'을 중심으로 철강 2097억원, 석유화학 1858억원, 시멘트 2826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2571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실증에 투입해 현장에서 즉각 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촉진을 위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수요기술을 상시 발굴·검토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탄소중립 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세제 및 융자 지원, 규제 개선, 국제 공동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은행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식도입

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적용한다. 개별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규정변경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DBIS)는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마련했고,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 지도로 시행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은행은 우선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통제관계는 의결권을 50% 초과 보유하고, 이사면권을 보유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이며, 경제적 의존관계는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기본자본의 5% 적용)를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이 포함된다"며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는 산업은행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구조조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나유리 기자 yu115@

북미지역 푸레쥬르 가맹점 생산 거점... 2025년 완공

>> 1면 '미국서 푸레쥬르 빵'서 계속

실제로 지난 5년간 푸레쥬르의 미국 매장 출점은 지속적으로 탄력 받으며 가맹점 오픈에 속도를 붙여 왔다. 2020년까지 매해 5~6개의 출점에서 2021년부터는 연간 10개 매장 이상을 오픈해 왔다. 가맹점 비중도 90% 이상으로 지난해 미국 내 푸레쥬르 점포당 하루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0% 상승하고, 2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다점포 가맹점 수도 절반에 달한다.

이처럼 미국에서 매장 출점을 지속

적으로 늘리고 있는 푸레쥬르의 성장세는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푸레쥬르는 2018년 CJ푸드빌의 해외 법인 중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5년 연속 흑자 폭을 늘려왔다. 올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0%, 영업이익은 250% 신장하며 성장세를 입증했다.

CJ푸드빌은 지난해 매출 약 7599억원, 영업이익 약 261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비 약 25%, 영업이익은 약 535% 가량 증가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머쥐었다.

사측은 올해 안으로 미국 내 푸레쥬르 매장을 120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 내 1000개 이상 매장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F&B 기업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CJ푸드빌은 국내의 우수 인재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푸레쥬르의 글로벌 사업이 활기를 띠며 국내의 경험 많은 다수의 임직원들이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 현지에 파견 중이다. 특히, 이번 공장

설립을 계기로 향후 미국에 추가로 우수 구성원들을 파견할 예정으로, K-베이커리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탄탄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미국 푸레쥬르 사업 규모에 발맞춰 생산과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미국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면서 "다양한 빵과 케이크의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K-베이커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알려,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베이커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분기 경제성장률 0.6%... 전분기비 국민총소득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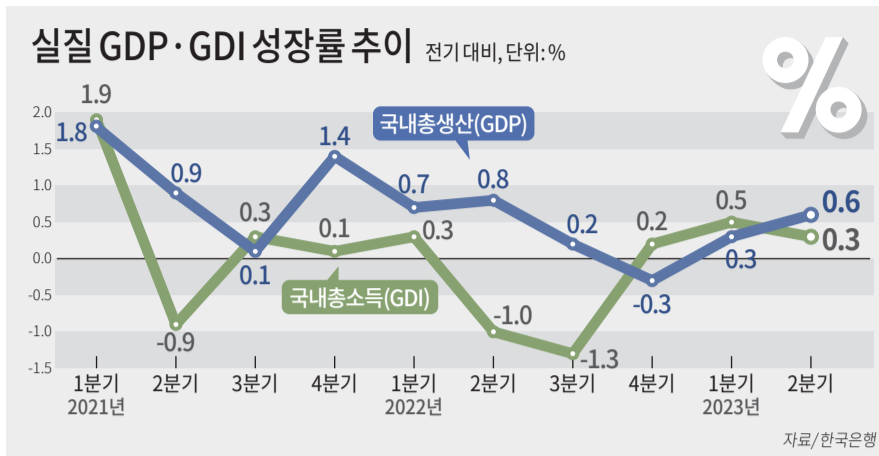
민간·정부 소비 ↓... GDP 영향
국외순수취요소소득 15조 → 10조
“미중 관계 등 불확실성 높은 상황”

2분기(4~6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0.7% 줄었다. 1분기 1.9% 증가했다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득, 1년만에 최대폭 감소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73조6000억원으로 1분기(476조9000억원)와 비교해 3조3000억원(0.7%)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0.9%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실질 GNI는 실질 국내총소득에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 국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전분기 462조원에서 463조2000억원으로 0.3% 증가한 반면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4조9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해외에서 국민이 벌어들인 돈에서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돈을 뺀 것이다.

최정태 국민계정부장은 “1분기 해외 직접투자배당금이 크게 늘어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 전분기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2분기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 손실이 전분기 32조 2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 저축액은 18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2% 상승했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소비 지출을 더 줄인 영향이다.

최중소비지출액은 375조5000억원의

로 전분기 대비 0.4% 감소한 반면, 국민 처분가능소득은 564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 0%대 성장 지속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역성장(-0.3%)한 이후 올 1분기 0.3%로 성장폭을 키웠지만 0%대 성장은 지속됐다.

국내총생산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으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더한 값이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준내구재(의류 및 신발)와 서비스(음식·숙박)를 중심으로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도 2.1% 줄었다.

투자는 건설투자가 0.8% 감소했지만, 설비투자가 0.5% 증가했다. 운송

장비가 줄었으나 기계류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식생산물 투자도 0.7%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었지만, 석유제품이 줄어 0.9%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3.7%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따라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1.4%포인트를 기록했다. 소비 지출(-0.5%) 등 내수(-0.8%)가 감소한 상황에서 순수출이 경제를 이끌었다.

최정태 국민계정부장은 “지금까지의 지표로 보았을 때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부진도 완화돼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긴축우려 등 하방요인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미국 경제 연착륙 등 상방요인이 혼재해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물가상승률, 3%대 재진입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

두 달째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 다시 3%대로 뛰어올랐다. 집중호우 여파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 국내 휘발유 등 석유류가 가격 하락폭을 축소할 영향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3.7%) 이후 최근 6달 사이 가장 큰 폭이다. 7월에는 상승률이 2.3%에 그친 바 있다.

품목별로,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3.9%,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2.7%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5.4%)이 크게 올랐다. 사과 30.5%, 복숭아 23.8%, 고구마 22.0%, 수박 18.6%, 쌀 7.8% 등이

다. 고등어(9.7%) 등 수산물 값도 5%(5.8%)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2.7% 하락했다. 국산쇠고기(-6.0%), 수입쇠고기(-7.3%), 달걀(-3.4%) 등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빵(5.9%)과 우유(9.4%), 아이스크림(14.3%) 등의 가공식품은 6.3%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 7월(-25.9%) 크게 내려간 바 있으나 지난달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하락률이 -11.0%로 축소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물가에 대한 석유류 기여도는 -0.57%포인트(p)였다. 지난 7월(-1.49%p)보다 하락폭 기여도가 크게 축소돼 반대로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자체만으로, 기여도가 이번 전체 물가상승률의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 금리 동결 등 안전벨트 채워둔 상황”

» 1면 ‘9월 위기설...’서 계속

특히 제2금융권은 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랐다.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말 기준 연체율은 2.80%로 작년 말 대비 1.28%p나 상승했다.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4.21%로 1.98%p나 뛰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43%로 0.52%p 상승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은 “9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우려에 그칠 뿐 각국 정부의 문제 인식과 대응책을 통해 상황이 호전되어 갈 수 있

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문 연구원은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금융 불안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채워둔 상황”이라며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202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 가능하다는 점과 수요 회복에 기반한 아파트 가격 상승, 이번 달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등이 예상되면서 9월 위기설은 확대해석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5th H.O.T. Festival
Health. Origin. Taste Festival

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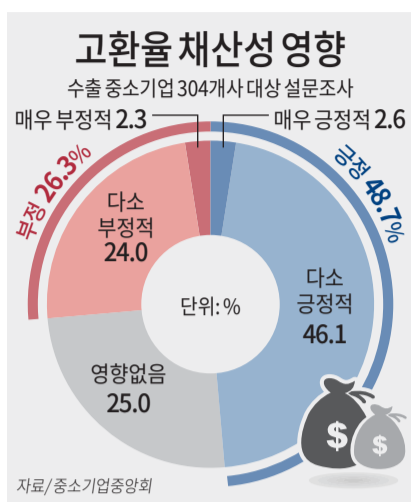
2023.09.18.(월) ~ 09.20.(수)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Hot yeong yang | 영양군 YEONGYANG-GUN

중소·중견, 환율 불안·인력난 심화

중소 걱정 환율, 달러당 1262원... '고환율 부정적' 26%

중기중앙회, 수출 중소기업 304곳 조사
중소 절반 가량 환위험 대비 못해
“안정적 환율운용” 등 정책 필요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러(\$)/당 1195원, 100엔(¥)/당 955원, 1유로(€)/당 13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환율은 1262원(달러), 973원(100엔), 1371원(유로)으로 각각 파악됐다.

하반기 예상 환율은 원·달러 1329원, 원·엔 938원, 원·유로 1417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현재 환율(8월24일 기준)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재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10곳 중 3곳은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환위험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24~29일에 수출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해 5일 내놓

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우선 지난달 24일 기준 환율(1달러=1325원, 100엔=910원, 1유로=1436원)을 놓고 응답기업의 48.7%는 기업 재산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26.3%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이 중앙아시아인 중소기업은 42.9%가 현 수준의 환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영향 없음'은 25%였다.

'긍정적'이라고 밝힌 기업의 경우 지급과 같은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달러 가치 상승)이 주는 좋은 영향으로는 '영업이익 증가'(8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12.8%) ▲기타(2.0%) ▲신규거

래처 다변화(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환율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73.8%) ▲영업이익 감소(35.0%)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26.3%) ▲물류비 부담 증가(20.0%) 등이 많았다.

이에 따라 환율 등락으로 인한 대응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절반에 가까운 49.3%에 달했다.

관리하는 기업들이 꼽은 환리스크 헤지 방법으로는 ▲수출단가 조정(23.7%) ▲원가 절감(16.4%) ▲대금 결제일 조정(6.9%)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3.6%) ▲선물 환거래 상품 가입(3.6%) ▲환변동보험 가입

(3.3%) ▲결제통화 다변화(1.6%) 순이었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안정적 환율 운용(61.5%), 수출 관련 금융·보증 지원(22.4%),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12.2%), 수출 다변화 지원 확대(11.8%)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과거 고환율은 수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지만 최근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부정적 영향도 늘어났다"며 "정부의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환율 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관련 금융·보증, 환변동 보험 등 지원을 확대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뿌리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일할 사람 부족하다"

중견련, 뿌리 중견기업 87곳 조사
필요 인력 41.3명인데 8.5명만 채용
지방위치, 대기업비 낮은 임금 등 원인

뿌리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인력이 부족해 공장 가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내놓은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가 공장 가동이 힘들 정도로 채용이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똑같다.

실제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총원 인력은 8.5명에 불과했다.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한다. 지방의 인력 부족률이 81.2%로,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부족률(66.3%)보다 높았다.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생산직'과 '사무직'이 79.9%, 79.4%로 가장 높았다. '생산지원직'과 '단순노무'는 66.7%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뿌리 중견기업의 56.7%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중견기업에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단순노무직 등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산직' 응답이 82.4%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과 '생산지원직'이 17.6%, 14.7%로 뒤를 이었다.

인력 부족 요인은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85.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납품 지연', '생산 설비 가동 중단'이 각각 14.3%를 차지했다.

인력난은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 ▲이직

(21.7%) ▲뿌리 산업 기피(2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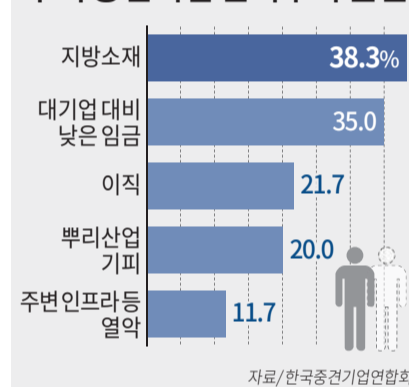
수도권과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들은 각각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지방 소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뿌리 중견기업들은 ▲출·퇴근 교통비 지원(36.2%) ▲주거 보조금·기숙사 제공(25%) ▲휴가비 지급(13.3%) ▲야간근로 수당 지급(6.7%) ▲사내 편의 시설 제공(5%)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지방

뿌리 중견기업 인력부족 원인



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교통, 주거, 문화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8월 외환보유액 35억 弗 감소... "달러 강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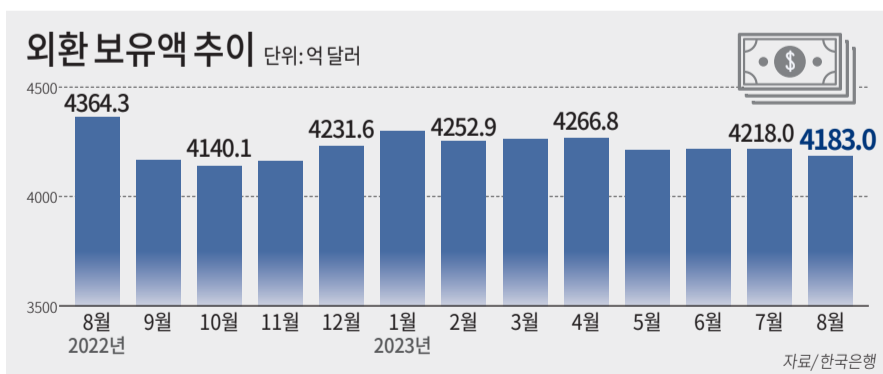
지난달 외환보유액 4183억 달러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5억 달러 감소했다. 6월까지 1200원대에서 안정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30원대로 오르면서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183억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사이 35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달러화 강세에 따라 기타통화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7월말 101.62에서 지난달 말 103.16으로 1.5% 올랐다. 그 결과 유로화·파운드화·엔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환산액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지난달 유로화 가치는 0.9%, 엔화 가치는 3.5% 하락했다. 호주달러와 가치도 2.7% 내렸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가운데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790억3000만달러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25억달러 늘었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48억4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61억3000만달러 줄었다.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

출권(SDR)은 150억5000만달러(3.6%), 금 47억9000만달러(1.1%), IMF포지션 45억9000만달러(1.1%)가 외환보유액을 구성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로 전월 순위를 유지했다. 1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2043억달러로 한달간 113억달러 증가했다. 2위 일본은 1조 2537억달러, 3위 스위스 8839억달러로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

첨단 파운드리 기술 진입 '미지수'

>> 1면 '중 7나노 공정 확인'서 계속

EUV 장비 반입 할 수 없어

첨단 파운드리 기술로 진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도 7나노 공정에 DUV 장비를 도입하려 했다가 결국 EUV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국은 EUV 장비를 반입할 수도 없고, 반입한다고 해도 수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EUV를 적용한 7나노 공정을 양산한 게 2018년,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면 기술 격차는 5년을 훌쩍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EUV 장비를 도입했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했다"며 "중국이 지금부터 EUV 공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기존 파운드리 업체에 가까워지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국 무역 제재가 틈을 보인 사건인데다가, 중국 현지 소비자들도 '애국 소비'에 나서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때문이다.

테크인사이츠댄 허치슨 부회장은 "중국이 핵심 제조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화웨이가 미국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방중하던 기간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것도 무역규제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반도체 업계도 중국 무역 규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7월 중국과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세상을 바꾸는 금융

"희망부자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부자이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들 역시 희망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꿈벌을 지키면서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책을 통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

이런 희망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희망부자들을 응원합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첫번째 이야기 😊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 금융그룹

뉴라이트 이념·정율성 공원 공방...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설훈 “독립운동가 흉 장군 폄하하고 친일 반민족 백선엽 장군 치켜세워”

권성동 “자유민주주의 질서 위협 대북인도지원사업 검증 수단 없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의 압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면 탄핵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의 고함도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 정반대 편에 서서 치고 받는 익숙한 광경이 재현됐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것은 흥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논란 등 이념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가인 흥 장군은 깎아내리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고(故) 백선엽 장군은 치켜세운다고 힐난했다. 설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백 장군의 국립묘지 기록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을 지

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그걸 파내고 육군사관학교 누리집에 관련 웹툰을 올리고 찬양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백 장군이 6·25 때 북한에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 받으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설 의원은 이를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했다. 뉴라이트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문재인 정부의 김원봉 선생 띄우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주회 행사 참여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 등의 사업을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검증할 수단이 없다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법과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대북인도지원사업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남쪽의 친북세력, 북쪽의 권력

자,中间的의 브로커가 대한민국의 세금을 훔쳐 간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했다.

실소 섞인 야유가 나온 순간도 있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흥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과 윤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의 참석차 출국한 것을 연결지었다. 김 의원은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 것과 국부이자 공산당원인 호찌민 베트남 전 국가주석의 묘소에 윤 대통령이 헌화한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은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다. 이념의 잣대로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베트남 국부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가져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여야의 양측을 향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재명 대표 단식 6일째... 대야투쟁 효과 논란

“지지층 결집·국정쇄신 원동력” vs “尹정부 향한 적절한 대응 아냐”

(친명계)

(비명계)

단식천막에 원외 인사·일반인 방문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홍보 나서 이상민 의원, SNS에 단식중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째 곡기를 끊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윤석열 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우려와, 단식이 길어지면 지지층이 결집해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대야투쟁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고 9월 5일 단식 6일차를 맞았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은 조를 짜서 국회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천막에 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원외 인사들도 천막을 찾았다. 단식 2일차엔 나소열 보령



단식농성 6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김태년-전해철 의원과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서천 지역위원장,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등이, 3일차엔 황명선 전 논산시장, 김상근 목사, 이부영·안재웅·신희범·장임원·박석무·임현영·이우재 당 상임고문들이 이 대표를 찾았다.

4일차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 대표를 찾아 격려했고 5일차엔 이해찬 당 상임고문,

김관영 전북지사, 함세웅 신부, 군의회에서 제명된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천막을 찾았다. 이날 단식 6일차엔 박남춘 전 인천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의 단식 천막엔 현역 정치인, 시민사회 원로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와 일반인들

도 찾고 있다.

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 ‘텔리민주’를 통해 이를 생중계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오전, 오후 생중계 뒤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열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천막을 찾는 사람들은 단식이 오염수 방류 저지·이념 공세 대응·국정 쇄신의 원동력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 상임고문도 4일 이 대표에게 “국회·정부·법원·헌재의 균형이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정기국회에서 당을 이끌어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지적도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폭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폭주와 독단을 제어하는데 단식이 별로 유효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럴수록 민심을 얻고 스마트하게 유능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면서 ▲민주주의 훼손을 멈추고 민심과 소통할 것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 ▲국정의 전면적 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전무해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단식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대통령실이 지난 대선 당시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의 악습을 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성명을 통해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주범과 언론노(언론노

조연맹)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와 바꾸려 한 것”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요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브로커인) 조모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기자들이 아는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고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尹 대통령 부부,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아세안·G20 열리는 인니·인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하기 위해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를 잇달아 방문해 다자간 회의와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후 동포 만찬 강담회를 시작으로 8일(현지시간)까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향한다. /박정익 기자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찰한 남반지 성운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의 미래

의식과 세계, 미래 교육의 새 지평을 찾아서

눈앞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대전환의 시대. 산업문명의 질주와 함께 도래한 지구적 위기가 인류 생존과 실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 위기, 바이러스 대유행, 6차 대멸종, 핵 대전 가능성, 불투명한 인공지능의 미래, 양극화와 지구 협력 정치의 실종…

눈에 보이지 않는 초 미시세계부터 거대 우주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현실은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이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한 공적 실천의 새 지도를 찾아나서야 합니다.

경희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제창한 후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염원을 되새기며,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은 새로운 상상과 도전의식으로 전환 문명 시대의 새 활로를 열어갑니다.

유엔은 1981년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로(2001년부터 9월 21일로 고정),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 선포했다.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3.9.11(월) 10:00 ~ 13(수) 18:00

입학정보 : iphak.khu.ac.kr 입학상담 : 1544-2828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

| 온라인 기능 강화 KHU:ON 입학처 : 비대면 상담과 지능형 검색, 영상 콘텐츠 강화로 수험생 정보 불균형 해소

경희사이버대학교

2024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3.12.1(금) ~ 입학상담 : 02)959-0000 / go.khcu.ac.kr

2024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3.11.13(월) ~ 입학상담 : 02)3299-8808 / grad.khcu.ac.kr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0% 늘었다

〈지난해 대비〉

상반기 23만건 중 14만여건 수용
개인차주 1인당 평균 0.85%p 혜택

롯데카드 82% 승인 '수용률 최고'
감면액 '최다'는 삼성카드 18.8억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60%대로 집계됐다. /뉴시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금리인하, 수용 건수당 이자 감면액 등이 공식항목에 추가된 만큼 수용률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60.7%다. 총 23만250건 중 14만1121건을 수용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동기(40.3%)와 비교하면 20.4%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사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카드였다. 1만3062건 중 1만775건(82.49%)을 승인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비씨카드다. 3729건 중 637건(17.08%)을 수용하는 데 그쳤

다. 평균 금리인하폭 또한 0.12%p로 업계에서 가장 낮았다.

이자 감면액을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가장 높았다. 총 18억8777만원을 절감해줬다. 2위인 현대카드(9억2468만원)와 비교해도 2배 넘는 이자비용을 줄여줬다. 이어 ▲롯데카드(8억2844만원) ▲신한카드(6억2475만원) ▲KB국민카드(1억7449만원) ▲하나카드(1억2000만원) ▲우리카드(5539만원) ▲비씨카드(135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수용률은

34.8%로 카드사 대비 25.9%p 낮았으며 인터넷은행의 수용률은 22.0%에 머물렀다. 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수용률은 각각 63.9%, 44.9%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상승한 배경으로 올해 저신용차주를 대거 흡수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시장에선 승진, 이직 등의 요인으로 소득이 상승했다면 대한대출을 통해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각 사별 취급 방침은 모두 다르지만 신용점수보다 소

득수준을 높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귀띔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상승 요인을 두고 관련 마케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별로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청구서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PC와 모바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반기 신용카드사 개인 신용대출 차주 1인당 평균 0.85%p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업계 최하위를 기록한 비씨카드는 점진적으로 수용률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취급했다. 타사 대비 금융서비스 취급 기간이 짧은 만큼 관련 방침을 강화해 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소폭이지만 작년 하반기 대비 수용률이 상승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온실가스 저감 대출 신한은행 1.2조 공급

신한은행이 지난달 말까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을 1조2000억원을 공급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환경부와 함께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공급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는 기업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대출과 동시에 이자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수혜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및 목표관리 적용업체로, 이 지원 관련비용은 신한은행과 환경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최초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을 공급했다. 현재까지 제조, 화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공급된 금액은 총 1조 221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진정성 있는 녹색경제활동을 선별하고 금리, 한도 등의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녹색금융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반환보증에 등기변동 알림까지… 전월세대출의 혁신”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보증금 90% 한도, 최대 2억 가능

앞으로는 토스뱅크에서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변동될 경우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5일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 고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하게 됐다"며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때 마다 불안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대출시 '반환보증' 신청,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가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토스뱅크는 우선 전월세보증금대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

료된 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상품이다.

홍 대표는 "지금까지 세입자는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수십~수백만원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최저 보증료를 적용하기로 해,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대상은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으로 보증료율은 연 0.02~0.04%이다. 연말까지 반환보증을 가입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기변동알림을 적용해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때마다 알림을 제공한다. 홍 대표는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긴 어렵다"며 "알림제공과

함께 필요시 변동사항을 이미지로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맞춤형 대출 안내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분류되며,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앱을 통해 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소득과 나이, 가족구성원 유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자녀특례는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는 무관하게 대출한도와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銀-네이버페이 제휴통장 한정 판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네이버페이와 제휴 출시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100만자로 한정해 추가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선불 충전금인 네이버페이 머니를 은행 계좌에 보관해 이자와 네이버페이 결제에 따른 포인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계좌 개설 좌수 한도 50만좌가 완판 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통장의 재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혜택도 강화했다. 최대 연 4%로 금리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치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존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네이버페이 온라인 결제 시 최대 3% 포인트 적립(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동시 이용 시 최대 7%) ▲현장 결제 시 2배 적립(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동시 이용 시 4배)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 이용 시 1.2%에 해당하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월 최대 1만원) 등 적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출금통장에 200만원 예치 시 연간 최대 8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적립 역시 매월 30만원 결제 시연간 최대 10만8000원의 혜택으로 다른 결제 수단 대비 3배에 가까운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더리움 노드 탈중앙화로 사용자 접근성 높여야”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KBW 2023 '임팩트' 온라인 강연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이더리움이 당면한 문제는 노드(서버)의 중앙화"라며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기 쉽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테린 창시자는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 (KBW 2023) 메인 행사인 '임팩트 (IMPACT)'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부테린 창시자는 "노드 탈중앙화라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 (KBW 2023) 메인 행사 '임팩트 (IMPACT)'에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온라인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6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는 노드 운영에 있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으로 '스테이트리스'도 중요한 퍼즐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스테이트리스는 노드를 운영할수록

데이터 역시 쌓여 부담이 커지게 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안한 방법이다.

부테린 창시자는 "장기적으로 히스토리(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니페스트 등의 것들을 다른 포털 네트워크에 저장해 노드를 운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히스토리 저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더리움을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할 것으로 이더리움이 더욱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탈중앙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SK엔무브, 열관리 등 신사업 추진... “전력 효율화 시장 선도”

‘ZIC’ 브랜드 데이

‘에너지 효율화 기업’ 정체성 강조
GRC 투자 등 액침냉각 기술 고도화
“전력 효율 증대, 미래 핵심 비즈니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유탄유 사업이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엔무브의 성장이 멈출까요? (답은) 단호히 ‘아니오’입니다.”

박상규 SK엔무브 사장은 5일 서울 광진구 광진구 그랜드워커히에서 열린 ‘ZIC 브랜드 데이’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SK엔무브가 열어갈 ‘新유탄유 시장’ 선점을 자신했다. 박 사장은 “2040년 54조원으로 예상되는 전력 효율화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도 약하기 위해 기존 유탄유 사업뿐 아니라 열관리 사업도 공략하겠다”며 “에너지 효율화(Energy Saving)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 전기차-내연기관 유탄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최근까지도 주요 정유사들이 실적부진을 겪는 중에도 유탄유의 견조한 수



박상규 SK엔무브 사장이 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에서 열린 ZIC Brand Day에서 ZIC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익성은 돋보인다. SK엔무브도 2009년 SK에너지에서 분사한 이후 ▲14년 연속 흑자 ▲지난해 매출 6조2000억원 ▲영업익 1조원 ▲영업이익률 17%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000억 이상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실적 효자’로 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내연기관 수요가 꺾이면 유탄유 시장도 함께 저물어 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사장은 “전기차 시대에는 유탄유 수요가 꺾일 것이라 보지만 이는



(왼쪽부터)엔진오일 ZIC 제품과 전기차용 유탄유 ZIC가 전기차 모형 안에서 구동되는 모습 /SK이노베이션

선부른 판단”이라며 시장의 예측을 전면 부인했다. 서상혁 e-Fluids 마케팅실장은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는 대신 가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터’와 감속을 제어하는 ‘기어박스’가 있다”며 “모터를 냉각하고 기어의 마찰저항을 줄여 ‘전비’를 향상시키는 전용 유탄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비는 내연기관의 연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통한다.

SK엔무브 측은 그룹III 유탄유 원료 경쟁력과 앞선 기술력을 통해 이미 전기차용 유탄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엔무브는 2013년부터

전기차용 유탄유를 개발해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료 경쟁력 역시 점유율 40%, 글로벌 1위 고급 유탄유인 그룹III를 통해 갖추고 있다.

◆ ‘액침냉각’ 기술로 열관리 시장 빠르게 공략

SK엔무브는 고급 유탄유 경쟁력과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액침냉각과 열관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자신했다.

‘액침냉각’이란 냉각유에 제품을 담가 냉각하는 차세대 열관리 기술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열관리 기술이다.

SK엔무브 측은 열관리를 위한 액침냉각 시장이 2020년 1조원 미만에서 2040년 42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자체 추산 중이다. 이미 SK엔무브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인 미국 GRC에 2500만달러의 지분 투자하고, 미국 PC 제조 및 IT 솔루션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박 사장은 “데이터센터의 경우 공기를 이용한 공랭식 대비 전력효율을 약 30% 이상 개선할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쪽에서는 냉각 시 소음 문제가 줄어든 것도 장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K엔무브는 SK텔레콤에 액침냉각 제품을 공급하고 현재 데이터센터에서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향후 데이터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열관리를 통한 전력효율 증대가 미래 핵심 비즈니스 영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모비스 “배터리 등 전동화 솔루션 강화... 유럽 수주 두배 목표”

IAA 모빌리티 2023

‘모비스 모빌리티 무브 2.0’ 소개
“유럽시장 年 평균 매출 30% 신장”

현대모비스는 유럽 최대 모터쇼인 독일 ‘IAA 모빌리티 2023’에서 유럽 시장 공략 키워드로 ‘전동화’를 내놨다.

현대모비스는 폭스바겐그룹에 대규모 배터리시스템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유럽 수주를 두배로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연 평균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3’ 프레스데이 발표회에서 ‘MOBIS MOBILITY MOVE



현대모비스 글로벌 영업 담당인 악셀 마슈카 부사장이 4일(현지시간) 열린 독일 ‘IAA MOBILITY 2023’ 미디어 발표회에서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기술을 중심으로 한 유럽 모빌리티 시장 공략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을 주제로 유럽 시장 공략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시스템과 PE시스템 등 전동화 핵심 부품을 필두로 차세대 사시 기

술과 커넥티비티 등 3대 솔루션으로 유럽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악셀 마슈카 현대모비스 글로벌 영업 담당 부사장은 “올해 유럽 지역 수주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연 평균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전시회 무대에 기아 EV9에 장착된 배터리시스템(BSA)과 PE시스템(Power Electric, 동력 전달시스템),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인 e-CCPM(Electric Complete Chassis Platform Module)을 선보이며 전동화 경쟁력을 알렸다. 또 전동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전기차에 어울리는 800V 고전압 배터리시스템

과 3세대 PE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모비스의 유럽 공략 솔루션에는 차세대 사시 기술과 커넥티비티 분야도 가세한다. 현대모비스는 ‘X(Everything)-By Wire’와 ‘5G 기반 V2X(Vehicle to Everything) 통합제어’ 기술로 유럽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레벨4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5G 기반 V2X 통합제어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를 융합한 텔레매틱스 신제품을 조만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모비스의 올해 유럽 지역 수주 목표는 12억9000만달러(1조7000억원)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르노코리아자동차

‘패스트트랙 정비예약’ 도입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9월 새롭게 선보인 통합형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 ‘Value up(밸류업)’로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5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400여개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 가운데 즉시 정비가 가능한 곳을 안내하는 ‘패스트트랙 정비예약’ 기능을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고객의 현 위치에서 가깝거나, 최근 방문한 서비스 지점 가운데 2시간 내 정비가 가능한 곳을 ‘마이르노코리아’ 애플리케이션(앱)에 표시해 빠르게 정비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대비해 차량 엔진 및 미션 관리 특별 정비 할인 캠페인도 10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스탠바이미GO’ IFA 최고제품 평가

英·美 등 해외유력 매체 찬사

LG 스탠바이미 Go가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올해 IFA2023에서 해외 유력 매체에 최고 제품으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 Go는 여행 가방을 닮은 케이스 안에 ▲화면 ▲스탠드 ▲스피커 ▲내장 배터리 등을 탑재한 일체형 제품이다. IFA2023으로 처음 유럽에 소개됐다.

영국 트러스티드리뷰는 LG스탠바이미Go를 ‘최고의 제품’에 선정했다.

IFA2023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제품이자 언제 어디서든 넷플릭스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매우 흥미로운 캠핑 및 여행 장비라고 평가했다.

영국 포켓린트도 IFA2023 최고 제품으로 LG스탠바이미Go를 뽑았다. 놀랍도록 재미있다고 극찬했다.

그 밖에도 테크어드바이저와 스테프, 미국 뉴스위크와 포켓나우, 우버기즈모와 가젯매치 등이 최고 제품으로 LG스탠바이미Go를 올렸다. 미국 안코 디자인과 톱스가이드는 최고 디자인 제품으로도 지목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기능성 입증

獨 매체 ETM 최고등급 ‘매우 좋음’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가 차별화된 솔루션 기능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독일 평가 전문 매체 ETM에서 스마트싱스 에너지로 최고 등급 ‘매우 좋음’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ETM은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앱 사용성과 기능 및 성능, 구성 등을 평가해 총점 96.1점을 부여했다.

아울러 손쉽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으면서 세탁과 건조, 세척 등 성능 저하도 거의 없다고 호평했다.

특히 쉽게 에너지를 추가로 절감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시연 모습

주는 AI 절약 모드에 주목했다. 자체 테스트 결과 AI 절약 모드로 세탁기를 사용하면 에너지를 80.2% 적게 썼다고 확인했다. 세탁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세탁력은 유지된다고, 에코버블 기술도 재조명했다.

/김재용 기자

HJ중공업

보령신복합 1호기 공사 낙찰

HJ중공업이 5일 보령신복합 1호기 발전소 건설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석탄화력인 보령 5호기를 LNG복합발전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13년 인천복합 3호기로 이전해 비어있는 보령복합 4호기 부지인 충남 보령시 오천면 고죽국가 산업단지 내에 500MW급 복합화력 1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했고, 낙찰금액은 1864억원(VAT포함)이며 준공은 2026년 6월이다.

HJ중공업은 현재 신세종복합 발전소 및 강릉안인화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인니 전기차 시장 선두 '우뚝'... 현지 생산 통했다

출시 1년 만에 전기차 1위 달성
인니 누적 판매량 3913대 기록
일본차 독점 체제 균열 평가도

현대자동차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트렌드를 주도하며 전기차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 중 처음으로 현대차는 전기차(아이오닉 5)의 현지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추고, 출시 1년 만에 전기차 1위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7월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3913대로 시장 점유율 56.5%를 기록했다.

지난해 현지 전기차 점유율 1위였던 중국 전기차 업체 우림자동차(1944대·28.1%) 점유율의 두 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다.

이는 아이오닉 5의 현지 생산과 판매 체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다. 현대차는 자동차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의



2022년 3월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식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앞줄 왼쪽 첫 번째)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의 박수를 받으며 전기차 '아이오닉 5'에 기념 서명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첫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2억7700만명)으로 시장 잠재력이 풍부할 뿐더러,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 역할도 기대된다. 아이오닉5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

중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한 최초의 전기차 모델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전기차 핵심 소재인 니켈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아세안 전기차 허브로 도약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전동화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2년 3월 16일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식에서 아이오닉 5 차량에 기념 서명을 남기고 "아이오닉 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 양산을 축하하기도 했다.

특히 2024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건설 중인 배터리셀 합작공장이 가동되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현지 전기차 시장 공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는 전기차 성장을 바탕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추격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HMID)은 인도네시아 내 자동차 판매 순위를 2021년 13위에서 2022년 8위로, 올 들어서는 7월까지 6위로 계속해 끌어올렸다.

이 기간 판매대수는 2021년 3005대에서 현지 생산이 시작된 2022년 3만 1965대로 10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1~7월 누적 판매대수가 2만 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현대차가 3.4%로 도요타(1위, 32.5%), 다이하쓰(2위,

19.6%), 혼다(3위, 14.5%), 스즈키(4위, 8.0%), 미쓰비시(5위, 7.6%) 등 주요 일본 업체들과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일본차가 50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먼저 진출해 견고하게 다져온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넘어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아세안 지역 공략도 적극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자동차공업협회(GAIKINDO)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7월 3만 114대의 인도네시아산(産) 자동차를 아세안, 아중동 등 인근 해외 시장에 수출하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을 70.0% 늘렸다.

이는 올해 7월까지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판매한 2만 65대보다 50% 이상 큰 규모로, 인도네시아 공장은 향후 현대차의 주요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공장을 기반으로 6억 7000만명에 달하는 인구, 풍부한 자원 등 잠재력을 보유한 아세안 자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LG, 반도체 기판 기술 '정면대결'

국제PCB·반도체패키징산업전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술 승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중요성 높아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반도체 기판 기술력을 겨룬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KPCA쇼) 2023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KPCA쇼는 국내 최대 기판 전시회다.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케이와이엑스포가 주관한다.

양사는 반도체 기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기술력으로 정면 대결을 펼친다. FC-BGA는 반도체를 '플립칩' 방식으로 연결해 발열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고집적 반도체 기판이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서버용 FC-BGA 양산 업체다. 일반 FC-BGA보다 면적은 4배, 내부 층수는 2배에 달한다.

LG이노텍은 미세 패터닝과 초소형 비아 가공기술 등 독자적인 기판 구현



삼성전기 KPCA쇼 부스.

기술로 높은 회로 집적도를 자랑한다. 기판 회로 물질을 최적화해 면적 확대로 발생하는 휨 현상도 최소화했다. FC-BGA 기판존을 부스 맨 앞에 배치하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전기는 모바일 IT용 초소형 고밀도 반도체 기판도 전시한다. 기판 내부에 코어를 제거해 두께를 50% 줄인 FCCSP와 기판에 여러개 반도체 칩 및 MLCC 등 수동 부품을 내장한 SiP도 소개한다.

차세대 패키지 기판 플랫폼 '시스템 온 서브스트레이(SoS)'도 있다. 2개 이상 반도체 칩을 기판 위에 배열해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는 초미세화 공정 패키지 기판이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기 패키징기술연구소장인 김우수 부사장은 "반도체의 고사양과 고성능화 요구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기판이 반도체 성능 차별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삼성전기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FCBGA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제조기술을 지속 발굴해 품질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FCBGA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KPCA 협회장인 정철동 사장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FC-BGA와 함께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등 혁신 기판 제품을 선보인다.

상담센터로 구성된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향후 건설 예정인 호반건설 아파트 '호반 씨뿔'에 볼트업을 구축·운영하고, 충전기 관련 신기술 솔루션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건설사가 건축 설계 단계부터 협업함으로써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여 고객 경험은 물론 전기차 대중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채윤정 기자 echo@

LGU+,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울 초 'EV충전사업단' 전담 신설

LG유플러스는 호반건설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울 초 CEO 직속 'EV충전사업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

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VoltUP)'을 선보이며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했다. 볼트업은 ▲LG전자, LS일렉트릭 등 기술력이 입증된 충전기 제조사들의 고품질 전기차 충전기 ▲충전 예약, 완충 알림 발송 등이 가능한 앱 플랫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시스템 및

SKB, 양자암호 전용회선 서비스 출시

양자키분배·양자내성암호 동시 제공

SK브로드밴드가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기술의 전용회선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사업자(약관신고 기준)가 되었다고 5일 밝혔다.

양자보안통신은 양자의 특성 중 하나인 불확정성과 복제가 불가능한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이 있다.

양자키분배(QKD)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각자 가진 양자키 분배장치를 활용해 암호키를 동시에 생성해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반면, 양자내성암호(PQC)는 해독하는 데 수백년이 소요되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소프트웨어로도 구현 가능해 QKD보다 더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보안, 비용 효율 및 편리성 측면에서 양 기술은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작년 7월 QKD와 올해 6월 PQC 전용회선 서비스의 약관신고를 완료, 두 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맞춤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가기관·공공·의료·금융 등 대형 고객의 경우, 보안성이 뛰어난 QKD전용회선을, 중·소형 기업의 경우 별도 장비 설치 없이 저렴하고 확장성이 용이한 PQC전용회선을 선택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 E&S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워라벨 유지 등 노동환경 개선 노력"

SK E&S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SK E&S는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인증패를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고용현황,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 정

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매년 10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사 우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SK E&S는 그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먼저 SK E&S는 지난 2019년부터 '자율좌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구성원들이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근무방식을 선택하고 근로시간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WINE PICK S

CHEONGDAM

청담점



와인픽스 청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와인픽스, 와인, 맥주, 위스키, 기타주류, 글라스, 칵테일 시럽, 치즈&사케테리까지, 주류와 관련된 3,000여종의 상품을 청담 플래그십 점포에서 만나보세요!

주소 | 강남구 청담동 1-1 퍼스트 빌딩 1층
영업시간 | 월~일, 11:00~21:00

☑ OPEN EVENT

Grand Open : 9/1(금)

Grand Open Promotion : 9/1(금)~30(토)

오픈 행사 상품은 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하여 9/1(금)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당일 가입 가능)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변동장에 은행·보험주 ‘인기’… 外·기관 매수 행렬

韓기업 실적회복 등 증시 변동성 ↑
우리금융지주 2.15% 등 올라
은행주 이동, 계절적 요인 분석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양호한 은행·보험주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기업의 더딘 실적 회복, 중국발 경제 위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처인 배당주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7거래일간 KB금융은 2.47% 상승했으며 우리금융지주(2.15%), 하나금융지주(1.54%) 등도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은행주 상승세를 이끌었다. 외국인은 지난 일주일간 우리금융지주를 335억원 순매수했으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도 각각 163억원, 162억원, 131억원 어치 사들였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들은 KB금융(157억원), 신한지주(85억원), 메리츠금융지주(83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은행주로 수급 이동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상 배당주는 매년 4월과 9월, 12월마다 수익률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9월은 배당 가시성이 확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9월은 2분기 실적 시즌을 마친 때”라며 “상반기 실적을 모두 알게 되면 올해의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최소수개월을 보유하는 중·장기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배당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배당주에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대 금융지주사들이 상반기 역대 최대인 9조182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도 은행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험주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KRX 보험 지수는 3.86% 올랐다. 올해 상반기 새로운 회계기준(IFRS9·IFRS17) 변경으로 보험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향후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

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은행주와 보험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주에 대해 “외국인이 주간 단위로 국내 은행주를 500억원 이상 순매수한 것은 지난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급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은행의 주주환원율 환원 확대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배당성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대배당수익률이 높아올해 하반기에도 은행주는 배당 랠리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계리적 가정 완전 적용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보험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해당 국면을 앞두고 저평가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기간 : 8월29일~9월4일, 한국예탁결제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결제
1	NVIDIA CORP	5914만5987달러
2	APPLE INC	3529만7778달러
3	TESLA INC	1975만1604달러
4	REALTY INCOME CORP	1437만7530달러
5	AMC ENTERTAINMENT HOLDINGS INC	1371만3925달러
6	TD YL TSL IN ENF	1356만3953달러
7	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	1124만0349달러
8	YANGUARD SP 500 ETF SPLR 39326002188 US9229084135	1064만3234달러
9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865만7045달러
10	PALANTIR TECHNOLOGIES INC CL A	816만1036달러

서학개미, 엔디비아·애플 등 집중 ‘매수’

해외주식 Click

빅테크주로 지분 이동 높아져
인공지능 수혜주 기대감 방증
지난주 엔디비아 783억 순매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엔디비아,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주로 지분을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인공지능(AI) 수혜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기대감을 방증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8월 29~9월 4일) 서학개미들은 최근 2주간 엔디비아에 공격적인 투자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엔디비아만 5914만달러(약 783억)를 순매수했으며, 순매수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엔디

비아가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엔디비아는 연초부터 7월까지 219.7%, 8월에 5.6%로 오르면서 이미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추가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남대중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디비아의 실적 전망 사항은 생성형 AI 관련 수요 확대가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다른 AI 수혜주로 분류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SOXL)도 순위권에 들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집중하면서 추격 매수에 들어갔다. 서학개미들은 상반기에 채권, 인버스, 레버리지 상장지

수펀드(ETF) 등을 선호했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 투심이 옮겨 간 모습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상반기에 뉴욕 증시를 주도해왔다.

다만 서학개미들이 지난주 2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애플(3529만달러)이지만 거래량 자체는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테슬라가 월등히 높다. 테슬라의 순매수 금액은 1975만달러(261억)로 3위에 그쳤지만, 매도 금액은 2억6205만달러(약 3471억)로 엔디비아(2억9738만달러)와 3533만달러(468억) 정도의 낮은 차이를 보였다. 그만큼 지난주 테슬라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6위에 이름을 올린 ‘TD YL TSL IN ETF’도 테슬라의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방식의 고배당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하반기 교통안전 점검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도관리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담당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행자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하반기에도 지속해 나간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조성,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개학 시즌을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도 새롭게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또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인

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한 경찰의 상시적 단속을 비롯해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200여개 버스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 전세버스 불시 점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선별적 단속 등으로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가을 나들이철에는 대형버스 등의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AI) 자동적발 시스템’도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 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 ‘역대 최고’

전세사기·강통전세 등 영향 커

전세 사기와 강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6만9988건으로, 전달(6만8644건) 대비 2%(1344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6%(4127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6만9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이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0만7534건으로, 1개월 만에 4%(4364건) 증가했다. 지난 1월(2만3922건)과 비교하면 29%(2238건) 늘었다. 2020년 5월(10만8541건)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와 강통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34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악성 임대인 수(233명)와 비교하면 7개월 만에 111명이나 늘어났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1조5769억원이다. /김대환 기자 kdh@

금호건설, 제주 가축분뇨 처리시설 준공

하루 최대 430톤 처리 가능

금호건설은 지난 4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하루 최대 200톤(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시설을 최대 430톤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로 499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으로 제주시는 제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됐

다. 가축분뇨 처리 후 얻게 되는 바이오 가스를 처리시설에 재사용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금호건설은 이번 증설사업에 자체 개발한 환경친화적 기술 ‘KH-ABC바이오 가스화기술(KH-ABC기술)’을 적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된 금호건설의 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교반(섞임) 성능 및 소화(미생물이 가축분뇨를 분해하는 작용) 효율을 향상시켜 농노도의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4년내 정보보호산업 시장 30조 목표 1.1조 투입, 1300억 보안펀드 조성

과기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3년간 연평균 8.5% 성장 전망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 수립 통신·금융 등 분야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에서 시장규모 3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총 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7년까지 130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도 조성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안기업으로 키워 보안을 강화하는 국제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은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올해 3019억달러(약 394조원)로 추산되는 정보보호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주요국은 자국 정보보호산업 수준이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산업 육성에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

령도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우리 힘으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고 고성장 중인 글로벌 보안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이번 전략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환되는 보안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근 보안 산업은 '경계보안' 구조에서 '제로트러스트'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단일 접속지점에서 강력한 보안 평가 및 통제를 적용하는 경계보안 대신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 요구 시 네트워킹이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검증하는 시스템인 '제로트러스트'로 체계가 전환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신,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새 모델이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보안내재화를 통해 새로운 보안 시장을 창출한다.

물리보안을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폐쇄회로(CC) TV 반도체칩(SoC)의 보급을 확산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조속히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문 안면 중심 생체인식 성능평가 분야를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를 견인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동 거점을 오만에서 사우디로 재편하는 베트남 거점 신설도 추진한다.

국내 산업의 생태계 확충 방안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판교, 부울경, 송파 등 지역으로 구성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만든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보안 펀드도 조성된다. 민관 합동으로 2027년까지 총 13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가 조성돼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생각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주도권을 확장함으로써 사이버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대동 이종순 Product생산개발부(오른쪽)와 포스코 김기수 공정연구소장이 업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

대동-포스코, 특수환경 임무로봇 개발

2025년 제철소 낙광제거 장비 대체

대동이 포스코와 협력해 제철소 내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을 개발한다.

5일 대동에 따르면 포스코 공정연구소와 제철소 내 낙광 수거 및 작업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대동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포스코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제철소의 작업 환경에 맞는 임무 로봇을 개발한다. 우선 내년까지 리모콘으로 원격 조정하는 임무 로봇을 만들어 이를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한다. 제철소 낙광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던 기존 장비를 대체해 대동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임무로봇이 작업장 내 낙광 및 폐기물을 제거하면서 제철소 작업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이를 기반으로 25년에는 사람의 조작이 최소화된 자율작업 임무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수환경 임무로봇은 골재와 흙, 풀더미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스키드 로더(Skid Steer Loader)를 모티브 삼는다. 여기에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작업기에서 착안해 청소용 로봇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줄 제철용 스노우 블로워, 청소용 블로워 작업기도 추가 개발한다.

대동은 포스코와 함께 제철소 내에서 작업자의 이동과 물류 운반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모빌리티 솔루션 발굴 사업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비자레알 사장이 4일 창원공장을 방문, 글로벌 전략 모델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차질 없는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품질관리 경영 통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는 모습.

비자레알 사장, GM창원공장 방문 '현장경영'

트랙스 크로스오버 성공적 출시 축하 "차질 없는 생산으로 수요 대응해야"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이 현장 경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5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비자레알 사장은 지난 4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GM 창원공장을 방문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성공적인 출시를 축하하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3일 부평공장과 30일 보령공장 방문에 이은 것으로, 이로써 비자레알 사장은 GM의 모든 제조 사업장들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창원공장은 현재 글로벌 전략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하고 있

는 GM의 핵심 공장 중 하나다. GM은 글로벌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생산을 위해 2021년 창원공장 내 신도장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기존 창원공장에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기술 확보했다.

신도장공장은 8만 평방미터 면적의 3층 규모로 시간당 60대의 차량 도장 작업이 가능하며, 주요 공정의 전자동화와 환경친화적인 설비 구축 등 최상의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한 GM의 최첨단 설비 기술이 투입됐다. 또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가 진행된 창원공장 내 프레스, 차체, 조립 공장 역시 최신식 생산 공장으로 리모델링하며 글로벌 시장의 높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날 창원공장을 방문한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웨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글로벌 시장 선전에 대해 임직원들의 공헌을 치하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조립 품질 관리와 높은 생산성 유지를 강조했다.

비자레알 사장은 "웨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GM의 가장 중요한 전략 차종 중 하나이며, 성공적인 출시와 폭발적인 인기가 있기까지 수고해준 임직원들의 노력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질 없는 생산과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를 통해 폭발적인 글로벌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창원공장과 한국지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금 700만원 선지급

중기부, 신속 일상복귀 일환 수립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피해 시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

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7월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재난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했다. /김승호 기자

교원 웰스, 신제품 '울스텐' 비데 2종

위생·절전·방수 '3박자'

교원 웰스(Wells)가 위생과 절전, 방수 기능을 모두 갖춘 '웰스 비데 울스텐 트윈', '웰스 비데 울스텐' 신제품을 출시했다. '웰스 비데 울스텐 트윈'은 물과 몸이 닿는 모든 곳에 항균 소재를 적용해 위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눈

에 보이지 않는 물탱크와 노즐 실린더에 세균 박멸효과가 탁월한 '항균동'을 사용했다.

'웰스 비데 울스텐'은 노즐·수압·건조5단계 미세조절과 전후 무브 세척, 어린이 세척 등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형 모델이다. /김승호 기자

6313억 투입해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집중'

농식품부, 물류비 지원 폐지 대신 수출 지원 예산 전년비 3.1% 증액 통합·관리하는 수출전문조직 육성 신선농산물 특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스.ag를 적용한 스마트팜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분야 수출확대를 위해 전문조직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지능형농장·농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집중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65억원에서 내년도에 245억원을 배정했다.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수출 바우처)도 올해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빈틈없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조절(CA)컨테이너, 저온창고, 냉동차량 지원 등 신선농산물에 특화된 물류체계 구축 예산 3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137억원으로 전년 68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렸다. 아울러 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 온실 1개소 신규 조성을 포함, 해외 판로개척, 현지 시장 테스트 예산 등을 확대 반영(45억원→62억원)하고, 스마트

팜 컨소시엄 해외 사업 수주지원 예산 4억원도 신규 반영했다.이밖에 해외 반려동물 시장 조사,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박람회(K-Pet Care Industry Fair), 수출용 제품 연구개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산업화를 위한 예산 19억원을 배정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물류비 폐지에도 2024년도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1% 증액 편성됐다"며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제고 등을 위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농진청, 필리핀에 채소 생산기술 전수

코피아 필리핀 시범마을 인프라 준공

농업인 500여 명이 자리했다.

농촌진흥청은 5일(현지시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 필리핀센터에서 '코피아 필리핀 채소 시범마을 시설인프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필리핀 채소 비가림시설 및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시닐로안 시범 마을에 구축한 기반시설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시범 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 1년여 만에 거둔 결실이다.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등 농진청 대표단과 이상화 주필리핀 한국대사를 비롯해 필리핀 도밍고 팡가니 반 농업부 수석 차관, 라구나주 주지사, 시닐로안 시장 등 주요 인사, 현지

기반시설은 채소 생산용 비가림 온실(6x40m, 240㎡) 8동, 육묘용 온실(6x16m, 96㎡) 1동, 수확 후 관리실(저온저장고, 창고 등) 1동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트랙터, 다목적관리기, 고성능 동력분무기 등)를 제공하는 등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농진청은 이번 기반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채소재배 기술 및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수확 후 관리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코피아 필리핀센터는 라구나주 시닐로안 지방정부 외에도 퀘손주 록반 지방정부와 누에바에시아주 자라곤자 지방정부 등 총 3곳의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차상근 기자

“수출초보社 시장 다변화 위해 함께 떨 것”

산업부, 브랜뉴머시너리 기업 방문 인도·UAE 등 신규 시장 중심 지원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등 활용 계획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뉴스시스

정부가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이 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브랜뉴머시너리 기업을 방문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브랜뉴머시너리는 수소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코딩기계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이다. 당초 내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과 유통 바이어 발굴을 지원한 결과다.

산업부는 인도, UAE 등 신규 전략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초보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기 실장은 해당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함께 발로 뛰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출전문위원과의 컨설팅,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현지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맞춤형 애로해소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해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스시스

수산물 5만원어치 사면 2만원 상품권 지급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 확대

만 9월11일부터는 40%까지 확대하겠다

오는 11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와 연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요건이 5만 원으로 내려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언론설명회에서 환급행사에 대해 언급하고, “지금은 할인율이 30%이지

현재 전통시장·수산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으로 구입하면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는다. 6만7000원 이상 구입 시 상품권 금액은 2만 원이다.

내주 초부터는 2만5000원~5만 원 미만 구입이 환급 1만 원, 5만 원 이상 구입 시 환급 2만 원으로 최소 구매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NASA 등 제주시 기후변화 대응 논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학술대회’

CAP)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6-8일 제주 히든클리프 호텔에서 ‘제14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30개 기관,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일 과학원에 따르면 30개 기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비롯해 미국 국립대기과학센터, 유럽 우주국, 독일 항공우주센터 등이다. 또 왕립 네덜란드 기상연구소와 왕립 벨기에 우주항공연구소, 일본 환경청, 중국 과학기술대, 유엔 개발프로그램(UNDP),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

올해 학술대회에선 지난 2020년 2월 발사한 우리나라 환경위성과 미 항공우주국의 템포,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5P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산출물의 연구 결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산출물을 활용한 대기오염·기후변화 연구 결과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소개한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미 항공우주국의 배리 리퍼 박사가 미국의 템포위성의 현황 △네덜란드 왕립 기상과학원의 페파인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자료의 개선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소개·발표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개정안 이달 발의

산업부, 킬러규제 혁파 후속조치 논의

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이달 중 추진된다. 또 규제 개선 내용을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도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4일 발표한 ‘산업단지 입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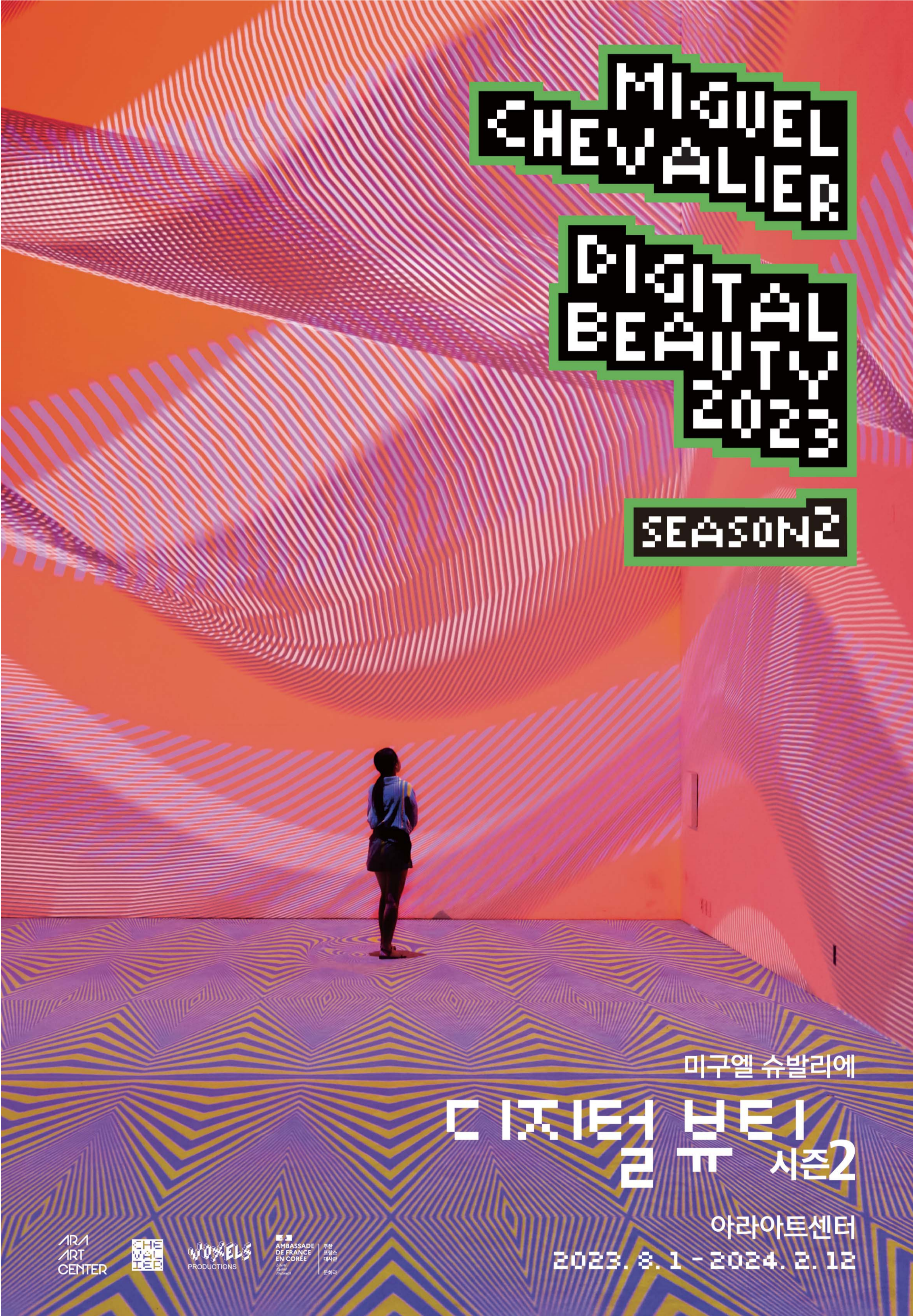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산단 입지규제와 투자자, 지방정부 산단 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Miguel
CHEVALIER

DIGITAL
BEAUTY
2023

SEASON 2



미구엘 슈발리에

디지털 뷰티
리뷰 시즌 2

아라아트센터

2023. 8. 1 - 2024. 2. 12

ARA
ART
CENTER



VOXELS
PRODUCTIONS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각

전남도, 국비 747억 확보해 에너지산업 성장 기반 마련

기반시설 확충·기술개발·복지 등 육성과 중장기 발전에 탄력 받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도

전라남도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에너지산업 분야 국비 747억 원을 확보해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영 사업은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 에너지 복지, 인력 양성 등 에너지 분야에 시급한 사업으로 전남도 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소재-소자-모듈-시스템 간 일련의 공정기술을 체계화한 실행기술 개발로 사업화를 조기 지원할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56억 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 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25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도심 미관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은도 육상풍력.

/전남도

전선로 지중화사업 16억 원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도모할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20억 원도 포함돼 전남도의 에너지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력 기자재 등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 기반과 관련해선 ▲전기자동차 보급·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경제실현을 도모할 친환경 부품 재활용 재제조 전환 기술 개발 40억 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17억 원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3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지능형 전력기자재 기술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19억 원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28억 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억 원 ▲미세먼지 저감형 굴뚝 폐열 활용 스마트팜 연계 운영기술 개발 및 실증 18억 원이 반영돼 에너지산업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이 체감할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으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55억 원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 100억 원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서민층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2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5억 원 ▲가스누출 사고를 예방을 위한 LPG용기 사용자 시설 개선사업 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 10억 원이 반영돼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을 겸비한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연구단지 시범사업 ▲해상풍력단지 운영기술 공동 연구·실증기지 구축 등 추가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배 재해보험금 63억 지급

전남도가 올봄 개화기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배 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63억 원을 지급했다.

전남 지역에선 지난 4월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배 등 과일 착과 불량, 양파 잎 마름 등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별 지급액은 나주 47억3000만원, 영암 6억9000만원, 장성 2억 원, 함평 1억5000만원, 순천 1억3000만원, 곡성 1억1000만원 등이다.

사과 저온피해를 입은 116농가에도 8억원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나주시

노인복지시설에 AI Vision 도입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한전KDN의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AI Vision)을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도입한다.

나주시는 지난 4일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전KDN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KDN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영상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화재나 연기, 수신호, 쓰러짐, 배회, 위험지역 접근 등을 감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어린고기 100만 마리 방류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어자원 생태계 유지·보전 및 어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21개 시·군에 잉어류 등 어린고기 100만 마리를 저수지 및 낙동강 수계 지류 하천 등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잉어류 60만 마리와 미꾸리 40만 마리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관리해 온 건강한 어미로부터 5월부터 인공수정 및 부화 과정을 통해 약 4개월간 길러 총 160만 마리(잉어류 100, 미꾸리 60만)의 우량 종자를 생산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창녕군

'민속 소힘겨루기대회' 개최

창녕군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제24회 창녕 상설 민속 소힘겨루기대회'를 부곡온천 관광특구 내 창녕소힘겨루기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설대회에는 창녕지역 소 40두를 비롯해 청도·의령지역 등 전국에서 54두가 출전해 총 94두가 경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방식은 단판승 방식으로 체급별 경기와 창녕 힘겨루기 육성우 시범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이벤트 경기로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와 '순금'의 경기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도로사업 국가 예산 6900억 고속·일반국도 등 40개 사업 반영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

경남도가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국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도내 도로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국가 예산 6900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도내 도로 사업 국비 예산은 6900억 원으로, 고속국도·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40개 사업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2419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1553억 원)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436억 원) ▲남해~여수 국도77호선 건설(400억 원)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216억 원) ▲대동~매리



서마산IC 불안전 교차로 현황. /경남도

국지도69호선 건설(200억 원) ▲송정IC~문동 국지도58호선 건설(374억 원) 등이 있다.

특히 도심 주택지와 직결되고 순천 방향 진출입로 차량 엇갈림 현상으로 상시적인 차량 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남해고속도로 서마산IC 일원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2억 원)가 반영돼 시설개선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부산시, 국내외 ICT 전문가에 역량 뽐내

(정보통신기술)

'K-ICT WEEK in BUSAN' 개최

부산시가 국내 대표 종합 정보통신 기술(ICT) 전시 행사 개최로 '2030세대 박람회'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역량을 국내외 ICT 전문가들에게 선보인다.

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3 K-ICT WEEK in BUSAN'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는 K-ICT WEEK in BUSAN은 영남권 최대 규모로 열리는 종합 ICT 전시 컨벤션 행사다. 국내외 ICT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양자정보 기술 등 최신 ICT 동향을 공유하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지역 ICT 산업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교류의 장이다.

행사는 'AI 코리아', '정보통신(IT) 엑스포 부산',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등 3개의 전시회가 통합 개최된다.

올해 K-ICT WEEK in BUSAN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ICT 비즈니스'를 키워드로, 다양한 ICT 기업 최신 기술·제품은 물론 제조, 해양, 금융, 물류 등 주요 산업과의 ICT 융합 현황과 접목 기회를 한눈에 선사할 계획이다. /부산=김영찬 기자

전남교육청, 내년부터 '기초정원제' 도입

학령인구·교원정원 감축에 대응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은 공립 중등의 경우 323교 중 173교(53.6%)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이며, 교원 정원 배정 부족으로 전체 소규모학교가 겸임·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1교(12.7%)가 도서·벽지 지정학교인데, 도서 지역은 겸임·순회 및 기간제교사 선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24년에는 '전남형 기초정원제' 1단계로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도서 지역 14개 학교에 정규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에 정규교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전남교육청

원이 배치되면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남에 대해 329명(초등 50명, 중등 279명)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혀왔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특판행사

명절성수품 물가 안정·소비촉진 사이스·네이버·바라마켓 등서 진행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이 상기후로 채소·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농특산물 극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 명절성수품의 물가안정과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와 직거래 행사를 열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행사로 경북 고향장

터'사이소'에서는 이달 30일까지 한가위 선물세트 특별기획전을 통해 구매 금액별 최대 25%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제휴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SG닷컴을 통해서도 한가위 기획전과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대도시 소비자대상 정례 직거래 장터로 자리를 잡고 있는 바라마켓 경북도점(대구 북구 소재)에서 제수용 농산물 할인 판매, 축산물 특판 행사를 매주 개최한다.

이어, 경북도는 타 도시에서 주최하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경북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현대백그룹, 단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형제경영' 강화

백화점·그린푸드 자회사로 편입 3317억 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
정지선 38.1%, 정교선 28.0%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분 확보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지에프홀딩스를 중심으로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그룹 컨트론타워를 통해 계열사간 시너지를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5일 한국거래소에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지주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공개매수 한 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총 3317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사 신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주들로부터 각각 현대백화점 420만 1507주와 현대그린푸드 948만 4011주를 받고 그 대가로 자사 신주 9857만 6164주를 발행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현대백화점그룹

이로써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백화점 지분 30.0%와 현대그린푸드 지분 38.1%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각각 38.1%와 28.0%의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분을 확보했다. 주식 교환 전 정교선 부회장은 23.8%, 정지선 회장은 1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교환을 통해 두 형제의 지분 합계도 기존 36.5%에서 66.1%로 1.8배 늘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앞으로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그룹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 구축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와 그룹 내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로 '비전 2030' 달성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며 "현대지에프홀딩스의 경우 현대백화점으로 부터 받게 되는 배당 수입 등으로 재무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과거 현대그린푸드와 인적분할 하던 당시 자사주 약 10%를 소각하고 최소 15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식 공개

매수 당시 주가와 공개매수가의 차이가 컸으나 청약 결과 청약률 91.27%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현대백화점은 7만 800원, 현대 그린푸드는 1만 232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당시 지주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제시한 현대백화점의 공개매수 가격은 5만463원, 현대그린푸드는 1만2620원이었다. 청약률 90% 이상을 기록하며 유상증자는 매끄럽게 마무리 됐다. 공개매수 대상 주식별로는 현대백화점이 목표 공개매수 대상 주식 466만9556주 가운데 420만1507주, 현대그린푸드가 목표 공개매수 대상 주식 1012만5700주 가운데 948만4011주를 청약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대백화점에 대한 증권가의 재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주가 재평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낮은 주주환원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았지만 현대지에프홀딩스 단일지주사로의 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재평가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 85% 증가 '역대 최고치'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뷰티 업계 비수기로 꼽히는 8월 에이블리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블리 뷰티관'은 2021년 3월 론칭한 에이블리의 뷰티 카테고리다. 특히 Z세대와 알파세대로 불리는 1990년대 후반기부터 태어난 '잘파세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8월 기준 뷰티관 입점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달 에이블리 뷰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으며, 주문수도 80%가량 늘었다. 덩고 습한 날씨에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수요가 줄어드는 '화장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색조, 베이스, 스킨케어 등 품목별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8월 가장 높은 구매 비중을 차지한 카테고리는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립스틱'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아이섀도'는 110%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색조 아이템이 주목받았다.

색조 카테고리 외 다양한 상품군의 성장세도 돋보였다. 같은 기간 '클렌징' 품목 거래액은 2.5배(150%)로 가장 큰 성장 폭을 기록했으며, '클렌징 오일'로 유명한 '마너공장'의 에이블리 내 거래액은 365%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G마켓·옥션, 사업자 대상 추석선물 사전구매 혜택

G마켓과 옥션이 10일까지 사업자회원(B2B)을 위한 '추석 선물세트 사전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업 회원을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모션은 대량구매 가능한 중저가 선물세트를 안내하고 할인혜택까지 제공한다. 사업자회원에게는 전용 '7%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7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0만원까지 할인해준다. ID당 매일 1회씩 다운로드 가능하다. 더불어 CJ제일제당, 동원, 사조대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중박사용 가능한 브랜드 전용 쿠폰도 준다.

익일합포장 서비스인 '스마일배송' 상품도 일부 발송일 지정 서비스를 선보인다. 상품 발송은 9월 11~12일 일괄 진행되며, 상품명에 발송일이 표기된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과일, 수산·견과 선물세트는 많이 살수록 할인폭이 커지는 '더 사면 할인' 상품들로 구성했다. 행사 상품 중 정육 선물세트를 5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스마일캐시 3만원을 증정하는 혜택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칠성, 음료·소주부문 고객만족도 1위

2023 NCSI 1위 기업 인증식 선정

롯데칠성음료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NCSI(국가고객만족도) 1위 기업 인증식'에서 음료 부문과 소주 부문에서 각각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칠성음료는 측정 항목인 고객의 만족도, 기대수준, 인지 품질, 인지 가치 및 충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음료 부문 11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하였고, 소주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음료사업은 헬시플레저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제로 슈거(Zero sugar) 탄산음료, 기능성표시 식품 등 건강을 추구하는 제품라인을 강화하여 매출 및 수익성 모두 크게 성장했다. '칠성사이다 제로'와 '뽕시 제로슈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22년 출시한 과일향 탄산음료인 '탐스 제로'도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제로칼로리 음료시장에서 시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왼쪽),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밀키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등의 해외 시장에서 유성탄산음료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롯데칠성은 소주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2006년 출시한 처음처럼과 함께 2022년 9월 출시한 처음처럼 새 로도 고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새로'소주는 기존의 소주 제품과는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佛 하디와 맞손 꼬냑·데킬라 등 제품군 확대

라리크 포시즌스 4종 국내 1세트 도입
원액 3종류 블렌딩 '카요타'도 출시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변화하는 주류시장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 유명 스피릿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꼬냑 제조사 '하디'와 계약을 맺고, 최고급 라인인 라리크 포시즌스 4종과 라리크 카요타 1종을 국내에 처음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꼬냑을 시작으로 성장세가 높은 위스키, 데킬라, 보드카 등 다양한 제품군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라리크 포시즌스'와 '라리크 카요타'는 100년 이상된 최

고의 원액만 엄선해 블렌딩된 하디의 최고급 꼬냑 제품이다. 또, 하디는 병 모양을 중요시하는 꼬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프랑스 명품 크리스털 업체 라리크와 협업해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다.

'라리크 포시즌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어울리는 맛을 내기 위해 하디만의 블렌딩 기술로 완성된 꼬냑이다. 전세계 400세트 출시, 국내에는 단 1세트만 들어와 의미를 더했다. '라리크 카요타'는 100년 이상된 원액 3종류를 블렌딩해서 만든 제품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패키지는 병과 라리크사의 디켄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디켄터는 꼬냑을 공기에 노출시켜 부드러운 맛과 향기를 극대화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 임재영 대표 등 임원 자사주 매입

"책임경영 통해 회사 성장 노력"

애경산업의 임재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올해 두 번째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지속 표명하고 있다.

임재영 대표이사는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다. 총 매입 금액은 2075만원이다. 임재영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자사주 1000주, 지난해 8000주 매입에 이어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주주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추가

매입했다.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 행렬도 이어졌다. 김상준 전무는 지난 3월 자사주 5000주 매입에 이어 1000주를 추가 매입했다. 정창원 상무 역시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자사주 2000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박진우 실장도 이번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며 1000주를 매입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책임경영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BBQ, 멤버십 주문액 일부 '포인트 적립'

BBM 멤버십 기준 개편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BBQ앱(자사앱)의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를 위해 멤버십(BBM)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BBQ앱의 BBM 멤버십은 주문금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포인트로 제공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BBM 멤버십

혜택은 기존의 포인트 적립 외에도 ▲Welcome ▲치맥이 ▲BIP ▲BBIP 등 월 구매총액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사이트 증정쿠폰,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신규 BBM 멤버십 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전월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 멤버십 등급이 분류된다. 마일리지는 1년 안에 사용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추석 선물세트에도 탄소중립·동물권 등 '가치소비' 열풍

작년 '그린워싱' 논란 탈피 노력
이마트·현대·롯데 百 친환경 강화
보랭백 회수·플라스틱 포장 제거
KGC인삼공사, 프로모션 전개

올 추석 유통가 명절 선물세트에서는 '가치소비'가 눈에 띈다. 가치소비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소비를 뜻하는데, 탄소중립, 동물권 등을 강조한 상품들에 가치소비 상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최근 대두된 가치소비 상품은 아직 유통업계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 탓에 지난해 가치소비 명절 선물세트를 출시한 일부 기업들은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다. 유통업계는 올해 그린워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마트는 이번 추석 가치소비 선물세트를 대폭 늘렸다. 특히 저탄소 과일과 축산물 위주 선물세트에서 벗어나 유기농 견과와 조미료 세트 등 품목을 다양화 했다. 대표 가치소비 상품인 저탄소 과일세트 물량도 작년 추석 대비 20% 늘렸다.



이마트의 자연주의 가치소비 세트.

이마트는 올해 '자연주의 유기농 참기름·참깨 세트' 물량을 30% 늘리고, 유럽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급 전일염, 유럽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올리브유 등 신규 차별화 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유기농 가공세트는 2021년까지만 해도 큰 매출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해 추석과 올 설까지도 각각 전년 같은 명절 대비 30%대 높은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한우를 중심으로 가치소비 상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보인 '친환경 한우 선물세트' 5종은 동물복지, 저탄소, 방목 사육, 무항생제 등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에



서 생산한 상품이다. 롯데백화점도 가치소비와 관련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보랭백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저탄소와 동물복지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했다. 이번 선물세트에서 눈에 띄는 상품은 품종 개량을 통해 비육기간을 일반 한우 대비 20% 이상 줄여 탄소량 또한 65% 절감한 '저탄소 한우 GIFT'다. 경남 산청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목장에서 자란 '동물 복지 한우 GIFT'도 내놓는다.

선물세트 배송을 위해 활용한 보랭백 회수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회수한 보랭백과 봄 시즌 사용한 현수막으로 제작한 파우치와 피크닉 매트, 피크닉 보



이마트

틀백을 감사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식품업계도 가치소비를 고려해 플라스틱 포장을 제거한 선물세트와 동물복지 제품 등 다양하게 선보인다.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지난 2021년 업계 최초로 선물세트 포장재에서 플라스틱을 전면 없앤 캔햄 선물세트인 'ECO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ECO 선물세트'는 플라스틱 트레이와 캔햄의 플라스틱 캡을 제거하고, FSC(국제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종이와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인쇄한 케이스를 사용했다.

SPC삼립은 웰메이드 델리미트 브랜드 '그릭슈바인'에서 선물세트 10종

을 출시했다. 또한 최근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 원료 및 친환경 패키지 등을 확대 적용했다.

KGC인삼공사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컨셉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10월 1일까지 '올 추석 힘이 되는 선물'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19종의 다보록 선물세트를 비롯해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화애락' '홍천옹' '천녹' '황진단' '홍이장군' '아이패스' 등의 인기제품에 대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복지 원료,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한 선물세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정성을 담아 준비한 추석 선물로 가까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년까지 1260억 투자해 DP공장 증설

(완제의약품)



연간 800만 바이알 생산 가능 전망
완제의약품 공급 안정·원가 절감 기대

셀트리온이 1200억원을 투자해 송도 캠퍼스 내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증설한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800만 바이알 생산이 가능한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늘어나는 매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도 캠퍼스 내 제1공장 옆에 신규 DP공장 증설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2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해당 공장은 이미 설계에 들어간 상태로 2026년 초 완공해 그해 연말까지 밸리데이션을 거친 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체제

에 돌입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해당 DP공장이 증설되면 DP생산의 내재화 비율을 늘려 매출 증대에 따른 제품 공급 안정성과 원가 절감효과를 빠르게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규 DP공장은 최신 공정 적용으로 기존 DP공장 대비 파트별 생산 인원을 약 20% 축소해도 생산량은 약 1.8배 향상돼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생산비용 및 인원 절감에 따른 원가 절감효과는 상업생산이 본격화될 때 가시화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DP공장이 가동되면 현재 위탁생산(CMO)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별 단가 대비 약 30%의 비용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원가경쟁력은 고스란히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공격적인 해외 입찰시장 참여나 미국, 유럽 외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 증

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규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기존 2공장 생산라인과 함께 품목별 집중 생산체계가 갖춰져 생산품목 전환(Changeover) 최소화 등에 따른 생산 효율성 향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품 품목별로 DP생산라인을 분산해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총 22개의 제품을 선보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DP공장 증설은 생산능력 내재화를 통해 생산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후속 파이프라인 제품을 포함한 제품 수요 증대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매출 수요 증대가 꾸준히 유지될 경우 추가 DP공장 증설도 검토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재훈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유기성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날 31일 이대서울병원 내 보구녀관에서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로잔대회에 의료부스 등 지원

한국로잔과 '제4차 로잔대회' 협약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날 31일 이대서울병원 내 보구녀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로잔과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화의료원은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준비 및 대회 기간에 의료 부스를 지원하며 의료선교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게 된다.

제4차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약 3000~5000명의 다국적 크리스천이 참여하는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로잔대회 유기성 한국준비위원장은 "선교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화의료원이 이번 로잔대회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의료원이 대회를 통해 세계 선교에 더욱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참가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적 돌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보령, 세계 최초 당뇨복합제 '트루버디' 품목허가

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결합
다른 기전 혈당 강하로 추가 효과 기대

보령이 지난날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계 최초 조합의 당뇨복합제인 '트루버디'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트루버디는 당뇨 치료제 가운데 SG LT-2 억제제 계열의 다파글리플로진 성분과 TZD(치아졸리딘디온) 계열의 피오글리타존을 결합한 개량신약이다. 두 성분이 조합을 이루는 복합제 허가는 이번이 첫 사례다.

다파글리플로진과 피오글리타존은

전체 당뇨병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에 쓰이는 약물로, '혈당 강하 효과'라는 공통점을 비롯해, 각 성분이 갖는 장점, 부작용 상쇄 효과를 통해 병용투여 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보령은 두 성분의 이상적 조합에 착안해 '진정한(True) 동반자(Buddy)'라는 의미에서 '트루버디(Trubuddy)'로 제품명을 정했다.

두 성분은 서로 다른 기전으로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당 강하 측면에서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파글리플로진은 제2형 당뇨를 유발하는

8가지 인자가운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장애'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 증가'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 감소'를 개선하는 반면, 피오글리타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장애' '간에서 포도당 생성 증가'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 감소' '지방조직에서 포도당 흡수 감소'를 개선하기 때문에 두 성분 조합 시 혈당 강하에 더 효과적이다.

/이세경 기자



동아오츠카, '컨피던스' 디자인 리뉴얼

젊고 귀여운 느낌... MZ세대에 어필
동아오츠카는 비타민음료 컨피던스(사진)의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1995년 출시된 컨피던스는 각종 영양성분에 산뜻한 과일 맛까지 갖춘 무카페인 비타민 밸런스 음료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비타민 속성을 강조할 수 있는 노란색

은 유지하면서 고유의 병모양을 살린 캐릭터를 활용했다. 젊고 귀여운 느낌을 살려 MZ세대 고객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비타민 5종과 아미노산 3종, 그리고 전해질 상태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컨피던스를 통해 일상 속 활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탤런트 이 경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수욱~쓱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죽 썬서 남 쫓던’ 키아프, 올해는 다를까



우리금융그룹, 호우 피해 장애인 시설에 기부금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 황우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이사,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전경애 돌봄타운 원장, 김정록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이사사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호반건설-LG U+,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력

호반건설은 LG유플러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반씨잇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충전기와 안전 분야에 대한 신기술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부장(왼쪽)과 현준용 LG유플러스 EV충전 사업단장이 업무협약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건설



정하중 한국지멘스 사장, ‘쿨 코리아’ 챌린지 참여

한국지멘스 정하중 사장은 5일 ‘쿨 코리아’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쿨 코리아 챌린지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약속하는 내용이다. 정 사장은 “지멘스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미래 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지멘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GC셀, 청년고용 등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

GC셀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과 청년 고용 증가 등 노력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았다. GC셀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인증패를 받았다. GC셀 제임스박 대표(왼쪽)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C셀



스타벅스 코리아, 차별없는 채용... 열린직장 만들어

스타벅스 코리아의 차별없는 채용을 통한 열린 직장문화가 빛났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 장수아 인사담당(왼쪽)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홍경안
시시일각

한국화랑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의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Kiaf SEOUL)과 영국의 프랜차이즈 페어인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이 9월 6일부터 10일(프리즈는 9일 폐막)까지 코엑스 전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로 제22회를 맞는 키아프는 이번 행사에 국내 갤러리 약 140개를 포함한 20여개국 약 210개 화랑을 통해 1300여명의 작가 작품을 소개한다. 독일 디 갤러리를 비롯해 최근 용산에 동지를 둔 일본의 화이트 스톤 갤러리 등이 외국 화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프리즈에는 전년과 비슷한 국내외 120여개 갤러리가 출사표를 던졌다. 가고시안, 하우스앤위스, 페이스, 데이비드 즈워너, 화이트큐브, 타데우스 로팍을 포함 세계 정상급 화랑들이 대거 포진했다. 밀레, 피카소, 폴 세잔, 앙리 마티스, 루치오 폰 타나, 루시안 프로이트, 에곤 실레 등 서양 거장들의 작품도 마스터스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두 개의 아트페어를 같은 공간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겁다. 8만원에서 25만원까지 하는 입장권도 불티나게 팔렸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김구림 전, 리안 갤러리의 이강소 전, 아트선재센터의 서용선 전, 구디갤러리의 김종숙 전 등 페어 개최 기간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이벤트도 많다.

하지만 한 지붕 두 행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속엔 걱정도 있다. 안방까지 내주었는데 주도권은 프리즈가 쥐자 ‘죽 썬서 남 쫓던’는 평가가 나온 2022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공간 내 관람 인원에서부터

느껴지는 온도차, 많게는 8000억원으로 추정된 프리즈 대비 약 10분의 1에 불과했던 매출 규모, 주요 판매 작품의 대부분이 외국 작가 작품이었던 현실은 지금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올해는 어떨까. 일단 지난해가 준비 부족 상태에서 치러진 느낌이었던 만큼 금년에는 대비된 흔적들이 엿보인다. 주최 측인 화랑협회는 참여 갤러리들이 추천한 작가 20명을 소개하는 하이라이트와 채색화 특별전 등의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국제 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법한 이슈들을 모은 토크도 마련했다. 또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키아프 플러스’를 키아프의 한 섹션으로 재배치하는 등 나름 차별화를 꾀하려 애썼다.

하지만 프리즈와 체급을 맞추기엔 여전히 부족한 인상이 짙다. 뭔가 풍성해 보이지만 글로벌 위상을 담보할 키아프만의 선명한 색깔은 잘

익히지 않는다. 문제는 작품이다. 올해도 ‘장식’에 머무는 알팍한 작품자들이 주를 이룬다면 미학적 가치와 미술사적 의미를 지닌 작품이 즐비한 프리즈와의 격차는 또다시 확인될지 수밖에 없다.

어쨌든 막은 올랐고 이번 행사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미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 ‘독사과’를 덩석 물은 것인지는 나을 뒤면 알 수 있다.

‘젊음’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키아프와 페어 참가 갤러리 120개 중 100여개를 아시아 및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갤러리로 채우며 ‘돈 되는 아시아’ 공약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프리즈와의 경쟁 결과에 따라 키아프는 향후 세계적인 페어로 발돋움할 수도, 아니면 외국 우수 페어의 위성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 키아프는 현재 그 기로에 섰다.

/미술평론가

경제계,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 “소비회복·경기진작 앞장”

상의, 전경련 등 6개 단체 협력 농축산물 상품권 구매 등 추진

한가위 소비진작을 위해 경제6단체가 뭉쳤다. 지역경제, 농어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소비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해 경제계가 앞장서겠다”며 추석을 맞아 이 같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 모여 “다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위해 우리 기업들과 경제계가 ‘실천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임직원들이 국내 가을 여행을 떠나도록 권장하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이 5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경제계,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 발표문’을 읽고 있다.

로 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관광지 및 지역특산물, 맛집, 우수 숙박시설을 소개하여 임직원들의 지역문화 체험과 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명절 기업 선물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를 적극 구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통 재래시장과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하고 직원 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

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국산품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총은 15개 지방경총을 비롯한 78개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단체들과 함께 기업들이 농축수산물 구매, 국내여행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

록 장려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우리 농수산물 이용 촉진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회원사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무협은 국내 최대 옥외광고시설을 활용해 캠페인 안내광고를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채널과 대학생 홍보대사를 통해 농축수산물 구매 촉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가정용 추석 음식키트를 6.25 참전용사, 소외계층 등 약 4만명에 기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로 농축수산물 구매를 권장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국내 여행 독려, 명절선물로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를 통한 우리 농축수산물 보내기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사진)가 4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하고, 다음 참여자로 오영식 이브이시스(EVSIS) 대표, 정승원 롯데이네오스화학 대표를 추천했다.

김 대표는 “환경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동참해서 기쁘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김 대표의 캠페인 참여 영상을 공개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최재원, ‘IAA 모빌리티’ 트렌드 점검 (SK그룹 수석부회장)

“다양한 완성차 업체 협력 모색”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3’(이하 IAA)을 참관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IAA 2023’은 4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10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다. SK온 대표이사도 겸직 중인 최 수석부회장은 이날 폭스바겐과 BMW, 현대모비스 등 IAA에 참가한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현지관계자들과 모빌리티 트렌드 관련 대화를 나눴다.

최 수석부회장은 “유럽 배터리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존 고객사를 포함한 다양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4일(현지시간) ‘IAA 2023’ 독일 뮌헨 메세 전시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SK온

완성차 업체와의 긴밀한 사업 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k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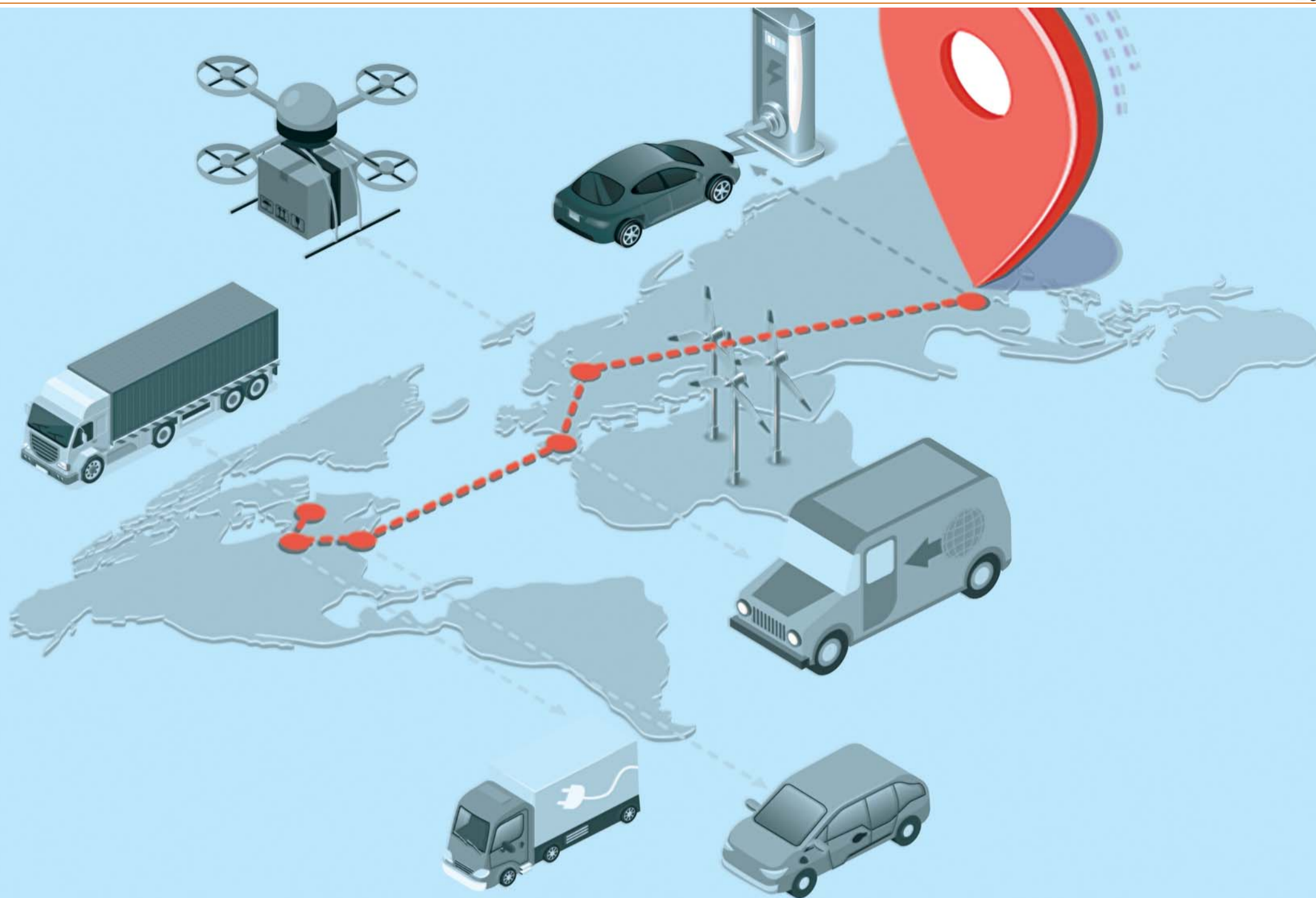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부음

▲박석만씨 별세, 박원주(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특임교수·전 특허청장)·박천희·박소영·박지영씨 부친상, 박건태·노승구씨 장인상 = 5일 오전 6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02-6986-4456

▲정춘자씨 별세, 안계진씨 부인상, 안주원 장원 승원(세미파이브 연구원)씨 모친상, 이백수(피알원 대표)씨 장모상 = 5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장례식장, 7일 오전 7시30분 031-900-0444.

▲황삼순씨 별세, 종철씨 부인상, 선취·인한(효성티앤씨 베트남 법인장)·준한(화진테크로 부장)·종한(에이치케이이사)씨 모친상, 현준(엠플로지 대리)·준오·근호·지현·주현씨 조모상 = 5일 창원파티마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55-270-1900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명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4~17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장소 :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블루투스 무선이어폰을 증정합니다.

아들에게 빛을 선물했다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막차 세대에게는 큰 라이프 스킴이 남아 있다.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을 치르는 거다. 사실 자녀 결혼과 관련해선 마땅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는 형편이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제일 큰 비용은 신혼집 비용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022 결혼 비용 보고서'에서 신혼부부의 총 결혼 비용이 2억8739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난 신혼집 비용이 결혼 비용 급증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걸 보는 심정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대부분은 신혼집 비용이고 나머지는 예식 등 결혼식 비용으로 얹혀진다. 하지만 놀랍다. '결혼은 꿈도 꾸지말라'는 말처럼 들린다. 가난한 부모는 물론이고, 사랑에 빠진 청년들에게도 무언의 협박처럼 다가올 듯하다.

며칠전 친구 아들이 결혼했다. 그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아이들 결혼 준비는 반평생에 걸친 숙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결혼식은 여느 중산층 처럼 평범했다. 그러나 특별한 부분이 있다. 그는 결혼하는 아이를 위해 얼마전 집을 사줬다. 교사부부로 정년을 앞둔 그들이 돈이 많아 집을 사줬을리는 없고, 아무튼 이 어려운 판국이 그가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가 아들에게 집을 사준 내력은 이렇다. 아들은 코로나19 직후 수물문제 해결을 위해 풀란드로 장기출장을 다녀올 정도로 유능한 2차전지 공정 엔지니어다. 그런 아들에게 결혼할 시기가 닥쳐 친구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바로 아들 명의의 '만능통장'이라는 청약통장이다. 십수년이 넘어 진즉에 1순위가 된 통장이다. 그리고 아들 회사 근처인 화성 동탄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당첨,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네게 결혼비용으로 아파트 분양권 하나와 5000만원 밖에 줄 것이 없구나. 결혼식, 아파트 중도금 등은 너희들이 감당해 나가는 걸로 하자."

아들은 내년 중반 신혼집에 들어가기로 하고 월세집에서 신집살림을 하기로 한 것이다. 마침 교사인 어머니감도 납득하고 혼수도 새 아파트 입주 이후로 미뤘다. 그가 아들에게 증여한도인 5000만원 외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만능통장을 준 것이

다. 그리고 보면 결혼이란 게 아이때부터 준비해온 셈이다. 또 있기는 하다. 엄밀히 말해 신혼의 출발부터 젊은 부부가 오랫동안 갚아가야 할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즉 빛이다.

식장에서 만난 친구들은 한결같이 '애들 결혼준비를 20여년을 해온 것 아니냐'며 이구동성이었다. 만능통장이 없는 친구는 한탄하기도 하고 어느 친구는 선견지명이라고 감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게는 자녀 결혼을 위해 만능통장을 만들고 매달 십수년동안 한두푼씩 꼬박꼬박 불입해온 이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고와 비애가 먹먹하게 비쳐졌다.

친구의 심정은 어떤가. 차마 친구에게는 그 심정을 묻지는 못했다. 다만 내 친구들은 그렇게라도 결혼을 치르는 친구에게 감복하는 걸로 바쳐는 나쁜 것 같지 않다. 빛 한덩어리보다는 집 한채에 모두 시선이 사로잡혀서 그 빛마저 선물할 수 없는 처지가 더욱 아플거라는 생각은 왜 이리 허전한 지. 만능통장이라는게 자녀들 결혼을 20여년 이상 준비하라는 족쇄란 걸, 그리고 그 족쇄를 물려주는 인계식이 결혼이라는 걸 알게 된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유커가 온다... '중심'을 잡자



**기지수첩
허정연
(산업부)**

한국~중국 하늘길 빛장이 풀렸다. 지난 2017년 3월 사드(THADD) 사태로 인해 멈춰있던 중국의 자국민 단체관광 제한조치가 6년 5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발 관광 수요 '후풍 예보'에 우리 정부도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태세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중국 방한객 200만명을 유치, GDP 성장

률을 0.16%p 높이겠다고 발표해 관련 업계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입·출국을 위해 1인당 1만8000원 상당의 전자비자 발급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또한 인천·대구·김해 공항의 슬롯을 늘리는 등 한·중 노선 증편을 위한 대책에 돌입한다. 정부는 지방공항 항공편을 일찍 예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모션도 진행해 지방공항 활성화도 노린다.

이어 중국 현지 마케팅도 강화한다.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있을 중국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그야말로 중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 예측'과 '관광의 질'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각을 세우고 있어

한국이 일본 대체 여행지로 인기를 끌 수도 있다. 하지만 유커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국가가 많아 그 반사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칫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항공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관광'을 유커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이슈가 있었던 2017년에도 중국은 '한한령'이 공식 조치가 아닌 업계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유커로 단기성 성과를 올리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한류 콘텐츠 강화와 다양한 나라를 대상으로 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심(중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zelkova@

오늘의 운세 9월 6일 (음 7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루어 내는 날. 48년생 내게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60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7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란. 84년생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니 실력이 우선.



37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49년생 생각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픈 하루. 61년생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만족해야. 73년생 물이 들어오니 열심히 노를 저어라. 85년생 하늘은 맑고 마음도 편안.



38년생 마음은 바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50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62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내가 먼저 다가가라. 74년생 말만 잔뜩 시끄럽다. 86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39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51년생 자녀보다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낫다. 63년생 가문에 단비가 내리니 좋은 일. 75년생 함께 하려거든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87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40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지만 기다리지 마라. 52년생 상처는 나야도 흉터는 남는다. 64년생 흐지부지될 수도 있으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76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88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주변에 적이 없다.



41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면 마음을 다친다. 53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5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77년생 사람이 많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 89년생 삶의 질은 내 선택으로 결정.



42년생 십 년생 목은 제왕이 단번에 해수된다. 54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66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 78년생 희망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 90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43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5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마라. 67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79년생 바라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91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다.



44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56년생 아랫사람 의견을 존중해줘야 대접받는다. 68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80년생 지인과 돈거래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결과 된다. 92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45년생 다시 관리를 잘 해야 남은 날에 후회하지 않는다. 57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9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81년생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 93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46년생 지칠 수 있으나 의외의 큰 이득을 본다. 58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70년생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 낭패. 82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라. 94년생 사돈덕에 마음이 너그러우면 세상이 아름답다.



47년생 자고 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 59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좋을 것이다. 71년생 진인사대천명이라 했다. 83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95년생 사랑에 푹 걸다가 닭 쫓던 개 지내 될 수도.



김상회의四季 백중재

필자는 신도님들의 부주한 일상을 배려하여 한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행하는 백중재를 백중날인 음력 7월 15일보다 사흘 전 일요일에 행했다. 이와는 별도로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는 백중 입재로부터 49일간을 일주일 간격으로 일곱 번 지내는 백중재는 꼭 동참을 원하는 신도님들과 소소히 올려왔다. 지난 음력 7월 초하루는 백중 5재이기도 하여 같은 날 동시에 재를 올리게 되었다. 해마다 맞이하는 백중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백중은 매년 처음 지내는 재齋인양 마음가짐도 경건하고 간절하다.

왜 해마다 같은 조상들을 대상으로 백중이라는 천도재를 지내냐고, 매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수십 번을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불가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도과를 이루어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해야 하는 것이기에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불보살님들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세세생생 인연되어진 선망부모는 물론 친족연속까지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무릇 모든 중생들과 존재들을 위하여 법다이 성불발원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가깝게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정성이요, 더 나아가서는 연속·친족까지 포함하여 여름 내 정성껏 수확한 과일과 곡물을 올리면서 정성을 더하는 것인 데다가, 4월 보름날 입재하여 올곧게 수행한 출가수행자들이 해제하기도 하는 날이니 이보다 더 의미 깊은 좋은 날을 찾기도 쉽지 않다.

유교에서는 보통 4대 불가에서는 보통 7대조까지는 거슬러 올라가 재를 행하는 것이니 일 년에 한 번 음력 7월 보름날 합동 천도재를 지내는 백중재는 그리 정도가 과하지 않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6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한글**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7			1	5			6
	1			2			5
		5	6		8	9	
2		1				3	5
	6						4
5		9				1	2
		4	8		7	2	
	2			4			1
1			3	2			4

3		1	7	8	9		5
7		2	6		9	1	3
5		3		8		4	6
			2	6			
9		6		7		2	8
1		9	5		3	8	7
2		4	8		7	3	1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현대백화점그룹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형제경영 강화
니



Life

추석 선물세트도
탄소중립 등
'가치소비' 열풍
L2



서울 수출입 감소세 줄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세 여전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동향' 전 권역 소비경기 하락폭 완만해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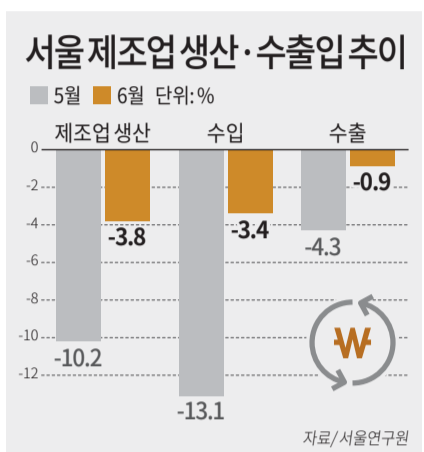
최근 서울의 제조업 생산, 수출입 감소세가 줄었으나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율 폭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조업 생산(-3.8%)은 전월(-10.2%)과 비교해 감소세가 축소됐다.

올해 6월 수출(-0.9%)은 전월(-4.3%)보다 감소세가 쪼그라들었고, 수입(-3.4%)도 지난 5월(-13.1%)보다 감소세가 완화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4%에서 4월 0.42%, 5월 0.44%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0.55%, 0.57%, 0.6%로 증가하는 추세다.

5월 서울의 중소기업 대출 총액은 전월 331조원 대비 2조원 증가한 333조원을 기록했다. 동월 서울 가계대출 총액은 345조원,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26조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해 3월 0.38%에서, 4월 0.42%, 5월 0.47%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출 고위험군 비율(DSR 70% 이상)은 지난 4월 9.01%에서, 5월 9%로 소폭 줄었다가 6월 9.03%로 다시 늘었다.

금년 6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대형마트의 으뜸폭 확대로 전월(4.7%)보다 높은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백화점 판매는 올 4월 7.4%에서 5월 6.6%, 6월 6.5%로 줄었다. 동기간 대형마트 판매는 3.9%에서 1.1%로 급락했다가 4.9%로 증가했다.

지난 6월 서울의 소비경기(-1.7%)는 소매업(0.1%), 숙박·음식점업(-4.7%)의 회복세로 전월(-4.8%)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올 2분기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4월 -2.9%, 5월 -2.7%, 6월 0.1%였고,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0.8%, -8.4%, -4.7%였다.

금년 2분기 서울의 전 권역에서 소비경기의 하락폭이 완만해졌고, 서북권에서는 소비경기 증가율이 상승 전환됐다. 올 6월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도심권 -1.9%, 동남권 -2.3%, 동북권 -1.9%, 서남권 -1%, 서북권 2.3%였다.

지난 7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전월 3.4%와 비교해 소폭 둔화됐다. 상품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세 둔화로 전월 3.9%보다 낮은 3.1%를 나타냈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줄면서 전월 3.1% 대비 소폭 하락한 2.8%를 기록했다.

6월 취업자수(8만3000명)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폭이 커지며 전월(7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중소기업 피보험자수(6000명)는 전월(1만명)보다 증가세가 소폭 감소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수시모집 11일부터 “공통원서 써주세요”

원서접수서비스 가입부터
대학별 접수기간 확인해야

오는 11일부터 2024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험생들이 미리 대입 공통원서의 통합회원 가입 및 공통원서 작성을 하도록 5일 당부했다.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는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로 여러 대학을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원서접수 서비스다.

이번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11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접수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은 1차 모집이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차 모집은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뤄진다.

수험생은 '사전 서비스' 기간을 활용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등 원서접수 대행사 중 한 곳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대행사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공통원서는 미리 가입한 '통합회원ID'를 통해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에 로그인해 작성한다. 공통원서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이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

공통원서는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원서접수 대행사 간 주고받을 수 있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며 "자신의 컴퓨터에서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

인천시, 국내 최대 규모 'KPCA 쇼' 개막

LG이노텍, 삼성전기 등 220개사 참가

인천시는 6일부터 8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2023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 산업전'(KPCA 쇼 2023)이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0회를 맞는 이번 전시는 'PCB & IC PACKAGING Move the World'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특히 LG이노텍, 삼성전기, 두산전자 등 15개국 220개사 500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규모다. 전시회에서는 전자산업 분야의 핵심

을 이루고 있는 인쇄회로기판(PCB) 반도체패키징 산업 종사자에게 선진기술 소개 및 기술 이전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시와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는 인천 대표 지역특화산업 전시회 육성을 위한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관객은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무료입장하거나, 현장에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광장 지하 '비밀공간' 40년 만에 공개

시청역~을지로입구역 지하2층 위치 공간 활용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광장 아래 숨겨진 1000여평의 지하공간이 40년 만에 베일을 벗는다. 서울시는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지하 2층에 있는 3182㎡ 규모 미개방 공간을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광장 13m 밑에 조성된 이 공간은 폭 9.5m, 높이 4.5m이며, 총 길이는 335m에 달한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지하상가 아래, 지하철 2호선 선로 위에 위치하는데 언제,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시는 40여년전 공사 후 남겨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선보여 숨은 공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해 지하철역을 도심 속 명소로 만



서울광장 아래 지하공간 모습. /서울시

드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하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숨은 공간, 시간 여행: 지하철 역사 시민탐험대'는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금~토, 하루 4회(11·13·15·17시) 진행된다. 탐험 코스는 서울시청 시민청→시티스타플→숨은 공간→시청역→도시건축 전시관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청 지하시민청에서 안전 교육을 받고 시 최초 지하상가

인 시티스타플과 을지로입구역을 통과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하게 된다. 해설가가 동행해 공간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참여신청은 '공공 서비스 예약 누리집(yeyak.seoul.go.kr)'에서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9월 22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시는 지하공간을 어떻게 탈바꿈할지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는 '숨은 공간, 숨 붙여넣기: 지하철역사 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 가능하다. 시는 사업 현실화를 위한 심화기획 등을 거쳐 당선작을 공간 조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상작 1점(상금 300만원)을 포함 총 35점을 선정해 2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6 | 해질 / 18:55

9월 6일 (수)
음력 : 7월 22일

수도권 날씨
23 ~ 3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19/30, 동두천 20/31, 가평 20/30, 파주 20/30, 서울 23/31, 양평 20/30, 수원 22/31, 용인 22/31, 평택 21/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다시 뛰는 여자축구, 오늘 소집...향저우AG 첫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 명문 세르비아즈베즈다 이적

▲김하성, '멀티히트 3타점' 폭발...샌디에이고 4연승 실패
▲송교창, 무릎 부상으로 日전훈 불참...남자농구대표팀 출국



▲최강 중 상대할 女탁구, 공격 선언... "수비만 하면 못 이겨"
▲한국청소년야구, 멕시코에 2-1 역전승...슈퍼라운드 진출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AMSUNG

Galaxy Z Fold5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습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앱에서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펜 Fold 에디션은 별도 판매이며, S펜 Fold 에디션은 Galaxy Z Fold5, Z Fold4, Z Fold3에만 작동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응원합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